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학위논문

한국어 부사 ‘혹시’에 대한 연구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전공

박 고 은

한국어 부사 '혹시'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박 진 호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전공
박 고 은

박고은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1월

위 원 장 전 영철 ㊞

부위원장 문 숙영 ㊞

위 원 박 진 호 ㊞

<한국어 초록>

한국어 부사 ‘혹시’에 대한 연구

박 고 은

본고는 현대 한국어에서 고빈도로 사용되는 부사 ‘혹시(或是)’의 사용 환경 및 문법적 특성을 분석하고, 최근 젊은 세대의 발화에서 관찰되는 ‘혹시’와 설명의문문의 공기 양상의 원인과 기능을 분석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문법 기술에서, ‘혹시’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추측], [가정], [불확실성], [의심], [의문] 등의 양태 의미를 갖는 문장부사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최근 젊은 세대의 발화에서 진리치를 갖지 않는 설명의문문 앞에 ‘혹시’가 사용되는 용법이 관찰되는데, 이는 ‘혹시’의 전형적인 용법과 거리가 있기에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2장에서는 ‘혹시’의 양태 의미를 [불확실성]으로 설정하였다. ‘혹시’는 그 양태 의미가 명제에 작용하는 부사이며, [불확실성]의 의미로 인해 판정의문문과 공기함을 알아보았다.

3장에서는 말뭉치 용례 분석을 통해 ‘혹시’의 전형적 용법을 살펴본 뒤, 여기에서 파생된 ‘혹시’의 확장 용법을 살펴본다. ‘혹시’는 전형적으로 판정의문문 앞, 판정의문문에 삽입된 내포의문절 앞, 조건절 앞, 양보절 앞에 사용된다. 본고는 ‘혹시’가 설명의문문과 직접 결합하는 것을 ‘혹시’의 확장 용법으로 보았다. 이때 ‘혹시’는 더 이상 부사로 기능하지 않고 후행하는 의문문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더하는 기능을 한다고 판단하였다.

4장에서는 3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혹시’의 의미적 특성과 화용적 특성을 살펴본다. 4.1장에서는 ‘혹시’의 의미적 특성을 분석한다. 4.1.1에서 본고는 ‘혹시’의 양태 의미 [불확실성]이 세 가지 유형을 갖는다고 보았다. 첫째, 명제 내용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둘째, 청자의 능력 또는 정보 보유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셋째, 화자의 화행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명제에 대한 화자의 객관적 판단, 즉 인식적 불확실성(epistemic uncertainty)이라는 객관적 양태 의미를 나타내던 ‘혹시’가 보다 주관적이며 청자를 고려하는 차원의 [불확실성]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다. 본고는 이를 ‘주관화(subjectification)’ 기제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4.1.2에서는 ‘혹시’의 [불확실성]의 양태 의미가 명제 층위가 아니라 화행 층위에도 작용하는 경우가 있음을 밝히며, ‘혹시’가 명제 부사뿐만 아니라 ‘화행 부사’로서도 사용됨을 알아보았다.

4.2장에서는 ‘혹시’의 화용적 특성을 살펴본다. ‘혹시’는 [불확실성]의 양태 의미로 인해 담화에서 완화(mitigation)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완화 기능은 담화에서 공손성을 나타내게 된다. 본고는 ‘혹시’가 담화에서 공손성 기능을 수행하면서 그 부사적 기능 및 의미를 상실하고, ‘공손성 표지’로만 기능하는 경우까지 살펴본다. ‘혹시’는 [불확실성] 양태 의미로 인해 담화에서 ‘공손성’을 나타내는 표지로 사용되고, 이러한 사용이 빈번해지면서 점차 담화표지로 작용하게 됨을 알 수 있다.

5장에서는 전체 논의를 요약하고, 1장에서 제시한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주요어: 혹시, 부사, 인식양태, 불확실성, 의문문, 조건, 양보, 공손성

학　번: 2020-22558

목 차

1. 서론 ····· 1
1.1. 연구 대상과 목적 ····· 1
1.2. 선행연구 ····· 4
1.3. 논의의 구성 ····· 12

2. 기본적 논의 ····· 13
2.1. 양태의 정의와 종류 ····· 13
2.2. ‘혹시’의 양태 의미 ····· 15

3. ‘혹시’의 용법 ····· 22
3.1. ‘혹시’의 전형적 용법 ····· 22
3.1.1. 판정의문문 앞 ····· 22
3.1.2. 내포의문절 앞 ····· 27
3.1.3. 조건절 앞 ····· 31
3.1.4. 양보절 앞 ····· 35
3.2. ‘혹시’의 확장 용법 ····· 36
3.3. ‘혹시나’와 ‘혹시라도’ ····· 38

4. ‘혹시’의 의미·화용적 특성 ····· 43
4.1. ‘혹시’의 의미적 특성 ····· 43
4.1.1. ‘혹시’가 나타내는 [불확실성] ····· 43
4.1.2. 명제 부사와 화행 부사 ····· 47

4.2. ‘혹시’의 화용적 특성 ····· 49
4.2.1. 완화표현으로서의 ‘혹시’ ····· 49
4.2.2. ‘혹시’의 공손성 기능 ····· 50

5. 결론 ····· 54

참고문헌 ····· 56
Abstract ····· 62

표 목 차

[표 1] ‘혹시’의 의미에 대한 선행연구 ····· 9
[표 2] ‘혹시’의 사전 기술 ····· 11
[표 3] 김다미(2018)의 “인식양태가 포괄하는 개념적 영역”
····· 19
[표 4] ‘혹시’가 나타내는 인식 양태의 의미 영역 ····· 20
[표 5] ‘혹시나’의 사전 기술 ····· 39

1. 서론

1.1. 연구 대상과 목적

본고는 현대 한국어에서 고빈도로 사용되는 부사 ‘혹시(或是)’의 용법과 의미·화용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상 대화 및 문어에서 ‘혹시’가 사용된 용례는 쉽게 찾을 수 있다.

(1) ㄱ. 혹시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 이 글을 읽고 계신가요?
ㄴ. 혹시 한 번 보여줄 수 있어요?
ㄷ. 혹시 알레르기 유발 해충은 아닌지 너무 걱정되네요.
ㄹ. 혹시 언제부터 우는 소리가 들렸는지 알 수 있을까요?
ㅁ. 혹시 마늘과 생각 건더기가 보기 싫으면, 재료를 모두 갈아서 즙을 짜 넣으면 된다.
ㅂ. 혹시 무슨 탈이 생기더라도 어머니와 동생을 보호해야만 했다.

(1)에 나타난 ‘혹시’의 출현환경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ㄱ)과 (1ㄴ)은 단문인 판정의문문 앞에 사용된 용례이다. 특히 (1ㄴ)은 의문문이면서 ‘요청’의 간접화행을 수행하고 있다. (1ㄷ)과 (1ㄹ)은 ‘혹시’가 내포의문절을 형성하는 어미 ‘-ㄴ지’와 함께 나타나는 용례로, (1ㄷ)은 내포의문절이 판정의문이고, (1ㄹ)은 내포의문절이 설명의문이다. (1ㅁ)은 ‘혹시’가 조건의 연결어미 ‘-면’과 함께 나타나 조건절을 형성하고 있으며, (1ㅂ)은 ‘혹시’가 양보를 나타내는 어미 ‘-더라도’와 함께 나타나 양보절을 형성하고 있다.

전통적인 문법 기술에서 ‘혹시’는 후행하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추측], [가정], [가능성], [의심], [의문]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부사로 취급

되었다. (1)은 ‘혹시’가 전형적인 용법으로 사용된 문장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서 ‘혹시’는 후행하는 명제에 대한 ‘의문’, ‘조건’, ‘양보’라는 의미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는다. 그런데 최근 젊은 세대의 발화에서 ‘혹시’의 특이한 사용이 관찰되고 있다.

(2) ㄱ. 혹시 서울 언제 오니?
ㄴ. 혹시 어휘론 수업 몇 시에 끝나?
ㄷ. 혹시 프리메이슨이 뭔가요?
ㄹ. 혹시 피어싱은 다 어디서 사?

위의 예문은 2020년 카카오톡 대화와 인터넷 게시판에서 수집한 용례로, (2)에서 ‘혹시’는 설명의문문 앞에서 사용된다. 그런데 설명의문문은 참·거짓의 진리치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가 후행하는 문장에 대한 [추측], [가정], [가능성], [의심], [의문]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에서 혹시는 후행하는 문장의 내용과 관계 맺기 보다는 질문을 하는 화자의 조심스럽고 공손한 태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듯하다. 이러한 ‘혹시’의 용법은 지금까지의 ‘혹시’의 의미가 후행하는 명제의 진리치에 대한 화자의 태도로만 기술해왔던 기존의 문법 기술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2)와 같은 ‘혹시’와 설명의문문이 공기(共起)하는 용법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즉 본고는 전형적인 ‘혹시’의 용법을 살펴본 뒤, ‘혹시’의 새로운 용법, 즉 설명의문문 앞에 ‘혹시’가 직접 결합하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본고는 연구 질문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한국어 부사 ‘혹시’는 전형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사용되며, 그 통사적·의미적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한국어 부사 ‘혹시’는 어떠한 맥락에서 설명의문문과 직접 결합하게 되었는가? 이러한 용법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셋째, ‘혹시’는 담화에서 어떠한 화용적 기능을 수행하는가? 또 그러한 화용적 기능을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본고는 ‘혹시’를 중점적으로 다루되, ‘혹시’에서 파생된 부사인 ‘혹시나’와 ‘혹시라도’의 용법을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혹시’의 비슷한말로 제시되며, ‘或’을 공유하는 부사 ‘혹(或)’, ‘혹야(或也)’, ‘혹여(或如)’, ‘혹자(或者)’ 등은 현대 한국어에서 사용 빈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본 연구는 언중의 실제적인 언어생활을 반영하기 위해 말뭉치 용례를 연구 대상으로 했다. 연구에 사용된 용례는 “국어 기초어휘 선정 및 어휘 등급화를 위한 기초 연구”(발주처: 국립국어원, 연구책임자: 이삼형, 연구기간: 2017~2020)에서 구축한 말뭉치와 국립국어원에서 구축한 “모두의 말뭉치”를 활용하였다. 위의 말뭉치 외에도, 필요한 경우 연구자가 직접 수집하거나 구성한 예문 역시 연구에 이용하였다.

본고는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였던 ‘혹시’의 문법적 특징을 정리하고, ‘혹시’의 기능 변화를 설명하여 ‘혹시’의 어휘 정보 기술에 기여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혹시’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사 체계에 대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부사를 유형별로 분류한 뒤, ‘혹시’가 부사의 분류 체계 중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대해 논한다. 둘째, ‘혹시’와 다른 양태부사의 특성을 비교한 연구이다. 특히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혹시’와 유의어 부사의 교육 방법 및 학습자의 오류를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① 부사 체계에 대한 연구

한국어 부사 체계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양이 축적되었으나, 본고에서는 ‘혹시’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 몇 가지를 추려 살펴보도록 하겠다. ‘혹시’가 부사 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보는 것은 ‘혹시’의 통사적·의미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전통적인 문법 기술에서 부사는 크게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부사’와 문장의 일부 성분을 수식하는 ‘성분부사’로 양분되었다. 문장부사는 다시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부사’와 문장부사를 제외한, 문장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부사’로 나뉜다.

고영근·남기심(2014)은 ‘혹시’를 문장부사 중 양태부사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양태부사는 화자의 태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성분부사와는 달리 그 자리 옮김이 자유롭고, 전통문법의 ‘화식부사’ 내지 ‘진술부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화자의 믿음이 의심스럽다든지 단정을 회피할 필요가 있을 때”(고영근·남기심, 2014:176) 사용되는 양태부사 ‘설마’, ‘아마’, ‘만일’, ‘설령’, ‘비록’, ‘아무리’ 등은 그 의미에 상응하여 평서형 어미가 오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손남익(1995)에서는 본고에서 말하는 ‘양태부사’에 대응하는 용어로 ‘서법부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손남익(1995)은 부사를 통사론적으로 성분

부사와 문장부사로 나눈다. 문장부사는 문장 전체의 의미를 수식 한정하며, 그 하위에 서법부사와 접속부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서법부사는 문장의 의미를 수식 한정하는 부사이다. 손남익(1995)에서 '혹시'는 '서법부사'에 해당하는 부사로, '무릇, 보아한, 보아한들, 봐하니, 어쩌면, 이를터이면, 이를테면, 하마터면, 혹, 혹시나, 혹자'와 함께 '추정'을 나타내는 어휘로 분류된다. 이때 서법부사는, "대부분 문두에 위치하게 되며, 문장에서 화자의 가정, 강조, 부연, 의혹, 이유, 전환, 추정, 확신, 부정의 의미를 부가"(손남익, 1995:147)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서정수(2005)는 부사류어의 분류에서 '구문론적 특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에서 구문론적 특성이란 "부사류어들이 문장 구조에서 피수식 성분들과의 어울림 관계(共起關係, co-occurence relation)에서 드러내는 여러 가지 속성"(서정수, 2005:25)을 말한다. 이러한 어울림 관계에 따라 부사류어는 크게 용언의 종류에 관계 없이 두루 어울리는 '자유 부사류어'와 용언의 종류에 따라 어울림이 제약되는 '제약 부사류어'로 나뉜다. 본고의 양태부사는 서정수(2005)의 '양태 자유 부사류어'에 속한다. 양태 부사류어는 "문장이 표시하는 명제의 내용을 말하는이 나름대로 인식하고 평가하는 태도를 나타내는"(서정수, 2005:48) 기능을 한다. 양태 자유 부사류어는 의미적 범주에 따라 여러 하위 범주로 나누어지는데, '혹시'는 '아마(도), 혹(시), 혹간; 설혹, 설령, 설사, 비록, 비록, 아무리, 암만; 만일, 만약, 가사, 가령'과 함께 개연성이나 가상적인 표현을 할 때에 사용되는 '가상성 부사류어'(서정수, 2005:48-49)로 파악된다.

이상 살펴본 선행연구는 모두 전통적인 부사 체계를 바탕으로 '혹시'의 통사적 지위 및 대략적인 의미를 설명해주었다. 그러나 전통문법 기술에 나타나는 문장부사와 성분부사의 이분법, 또 문장부사 내에서는 연결어미와 양태부사의 다른 부사들을 모두 양태부사로 취급하는 전통문법의 관행에 대한 비판으로, 최근에는 문장이나 담화의 층위를 고려한 부사 분류를 제시한 연구들도 눈에 띈다. 그중에서 '혹시'를 언급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신서인(2014)은 명제, 발화행위, 화자, 청자 등의 담화 구성 요소를 고려

하여 한국어 문장부사를 새롭게 하위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다. 신서인(2014)의 분류에서 한국어 부사가 크게 성분부사와 문장부사로 대별되는 것은 기존의 연구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신서인(2014)은 Ramat&Ritta(1998)의 문장부사 계층 부류를 한국어의 부사 분류에도 적용해, 기존의 연구에서 양태부사로만 분류되었던 문장 부사들을 부사가 관여하는 층위를 기준으로 좀더 세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즉, 한국어의 부사는 크게 서술어 층위/사태 층위와 관련되는 성분부사와, 명제 내용/영역/발화행위/접속과 관련된 문장부사로 나눌 수 있다(신서인, 2014:100-101). 문장부사는 접속부사, 발화행위부사, 영역부사, 명제부사로 좀더 세분될 수 있고, 발화행위 부사는 다시 발화행위 중심 부사와 화·청자 중심부사로, 명제부사는 다시 양태부사와 평가부사로 나뉜다. 본고에서 다루는 '혹시'는 문장부사 중, 명제 층위에 작용하는 명제부사이며, 명제부사 중에서도 양태부사에 속한다. '혹시'와 함께 양태부사에 속하는 부사로는 "확실히, 분명히, 틀림없이, 진짜, 정말(로), 참말(로), 진실로, 당연히, 모름지기, 마땅히, 과연, 도대체, 대체; 아마(도), 어쩌면, 혹, 짐작컨대, 행여나, 설마; 보아하니, 듣자하니"(신서인, 2014:101)가 있다. 신서인(2014)에 따르면, '혹시'는 뒤에 나오는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 전체에 대한 화자의 태도, 즉 인식 양태를 나타내는 부사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한송화(2016)는 부사가 가지는 담화적 특성에 주목하여, 담화·화용적 관점에서 부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한송화(2016)에서는 화식부사(본고의 양태부사), 즉 명제에 대한 화자의 믿음과 판단을 나타내는 '사실, 진짜, 정말, 분명히, 물론, 과연, 혹시'의 담화 기능에 주목한다. 이 연구에서는 '혹시'가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믿음이 약함을 드러내, 화자가 발화 내용을 약화하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저... 죄송하지만 혹시 내일까지 집으로 배송해 주실 수 있으세요?' 와 같은 요청 발화에서 '혹시'가 발화 내용에 대한 공손의 기능을 할 수도 있음을 밝힌다. 한송화(2016)은 '혹시'에 대한 담화·화용적 측면에서의 연구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② ‘혹시’와 다른 양태부사와의 비교 연구

‘혹시’와 함께 양태부사로 분류되는 다른 부사들 간의 비교 연구는, ‘혹시’의 의미를 비교를 통해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하기에 의의가 있다.

차현실(1986)은 인식양상부사(modality adverb) ‘아마’, ‘글쎄’, ‘혹시’의 통시적 특징과 의미를 다른 양태 범주와 관련하여 분석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생성문법의 관점으로 의문문에서 ‘혹시’가 실현되는 통사적 기제를 설명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차현실(1986)에서는 ‘혹시’의 의미를 ‘소극적 추정’과 ‘조건절에서의 가정’으로 파악한다.

장영희(1994)는 현대 한국어의 화식부사(話式副詞)를 대상으로 의미를 분석하여 유형별로 분류하고, 통사론적 호응 범주를 밝힌 연구이다. 여기에에서의 ‘화식부사’는 문장 명제에 대한 화자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로, 본고에서 말하는 ‘양태부사’에 해당한다. 장영희(1994)는 화식부사를 ‘서법적 의미’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성], [당위성] , [조건성] , [추측성] , [유사성] , [소원성] , [의문성] , [유보성 결론] , [강조성] 의 9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때 ‘혹시’는 [추측성] 부사로 분류되는데, ‘혹시’가 다른 추측성 부사와는 달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대적 추측’을 나타낸다고 보았다(장영희, 1994:87). 또한 이 연구에서는 ‘추측’의 주관성에 주목해, 화자가 추측을 할 때 어떤 사건이 화자가 추측하는 방향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한 화자의 심적 태도가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장영희, 1994:94).

양태부사 간의 비교 연구는 특히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가 많다.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양태부사 사용에서 저지르기 쉬운 오류와 그 원인을 설명하고, 유사한 양태 의미를 가진 부사들 간의 통사적·의미적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경우 개별 양태부사와 공기하는 표현들, 즉 서술어, 문장 유형, 서법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사용자·학습자의 관점에서 부사의 특성을 설명하였기에, ‘혹시’의 화용적 기능 및 특성에 주목

한다.

김지혜(2010)는 기존 한국어 교재에서 '아마'와 '혹시'가 추측을 나타내는 유사 어휘로만 기술되었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어휘와 모어 어휘를 일대일 대응시켜 '아마'와 '혹시'의 사용에 잦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연구는 '아마'와 '혹시'의 실제 용례를 통해 어휘 정보를 분석하여 어휘 교육 및 어휘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김지혜(2010:178-180)는 '아마'와 '혹시'가 [추측]이라는 넓은 공통적 의미를 갖지만, 구체적으로 '아마'는 [개연성], '혹시'는 [의심] 또는 [막연한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본다. '혹시'의 이러한 의미적 특성 때문에, 화자는 청자에게서 동의보다는 의심이나 어떤 가능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답을 기대하게 되고, 따라서 '혹시'가 판정의문문은 물론 선택의문문에서도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것이다(김지혜, 2010:179). 김지혜(2010)의 연구는 '혹시'의 양태 의미를 단순히 [추측]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이유를 뒷받침해준다.

리해영(2011)은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양태부사 '혹시'의 사용에서 범하는 오류를 짚어본다. 오류를 낳게 된 '혹시'의 문법적 특성을 살핀 뒤 '혹시'와 자연스럽게 공기하는 표현들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혹시'의 교수 방법을 제시한다. 리해영(2011)에서는 '혹시'의 의미를 '추측', '추정', '가정'의 세 가지로 세분화한다. '추측'의 경우 의미를 다시 '막연한 추측'과 '화자의 바람'을 나타내는 두 가지 의미로 나누었다. 이때 '화자의 바람을 나타내는 추측'의 의미는 청자가 존재하는 의문문에서 화자가 내용에 대한 불확실한 태도를 표현하기보다는, 화자가 청자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 화자가 기대하는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묻거나, 또는 화자가 자기가 추측한 것이 맞을 것이라고 바라는 것을 나타낸다(리해영, 2011:31).

보일평(2017)은 [추측]의 의미로 포괄되었던 양태부사 '아마(도), 혹시(나), 아무래도, 설마, 어쩌면'을 말뭉치 통계 분석을 통해 서술어·문장 유형 호응 양상을 밝힌 뒤, 추측 양태부사 교육 방안을 밝힌 연구이다. '혹시'의 기본 의미를 '확실하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 추측을 나타

내는 말'(보일평, 2018:-36-37)로 설정하고, 추측을 나타낼 때의 상황에 따라 화자의 기대나 우려 등의 태도를 함께 표현하는 기능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보일평(2017)은 '혹시'의 통사적·의미적 특성을 넘어 화용적 기능에도 주목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장영희(1994), 김지혜(2010), 리해영(2011), 보일평(2017)은 모두 '혹시'의 통사적·의미적 특성을 규명하고 화용적 기능까지 언급했기에 의의가 있다. 이외에도 '혹시'와 관련된 최근의 한국어 교육 분야 연구로는 최죽산(2015), 문혜정·권성미(2015), 강민(2020) 등이 있다.

선행연구에서의 '혹시'의 의미 기술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차현실(1986)	[미지], [-확실성]
장영희(1994)	추측성부사
손남익(1995, 2016)	추정
서정수(2005)	가상성(假想性)부사
김지혜(2010)	[의심],[막연한 가능성]
리해영(2011)	[추측], [추정], [가정]
보일평(2017)	추측

<표1> '혹시'의 의미에 대한 선행연구

③ 사전적 정의

마지막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세 사전, 즉『표준국어대사전』,『고려대한국어대사전』, 『연세 한국어 사전』에 나타난 '혹시'의 정의를 살펴볼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	1. 그러할 리는 없지만 만일에 예 혹시 내일 죽게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니? 혹시 실패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마라. 2. 어쩌다가 우연히 예 혹시 그 사람을 만나거든, 내 말을 꼭 전해 주게. 혹시 이쪽에 오게 되면 꼭 연락해라. 3. 짐작대로 어쩌면 예 혹시 편찮으신 것은 아닐까. 혹시 내일 떠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4. (의문문에 쓰여) 그러리라 생각하지만 다소 미심쩍은 데가 있어 말하기를 주저할 때 쓰는 말 예 혹시 절 모르시겠습니까? 혹시 우리 전에 본 적 있나요?
『고려대한국어대사전』	1. 연결어미 '-면, -라도'와 함께 쓰여, 이 말이 포함된 앞 내용이 가정된 일이나 상황이며 뒤 내용이 그에 따른 결과나 반응을 말할 때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실적 상황에 대해 주로 쓰인다. 예 혹시 김 선생님을 만나면 제가 기다리다 먼저 간다고 좀 전해 주세요. 과정이 중요한 것이니까 혹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지는 마라. 2. 뒤 내용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나타낼 때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말. 예 김 선생이 이렇게 오랫동안 학교를 나오지 않다니 혹시 어디가 아픈 것이나 아닌지 걱정이 된다.
『연세한국어사전』	1.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짐작하기로. 예 혹시 김범우라는 사람 아시오? 혹시라도 언짢게 생각했을까 조금 걱정이었어. 2. 행여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듯하여

	예 그것은 혹시 그 남은 떡을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3. 만일에. (그럴 일이 있는) 경우에 예 혹시 나 없을 때 그가 나오거든 붙잡아 둬. 혹시 다급한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말해라. <참고> 1. 의문이나 가정을 나타내는 문장에 쓰임 2. 강조하는 뜻으로 '혹시나/혹시라도'의 꼴로도 자주 쓰임.

<표2> '혹시'의 사전 기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1, 2번 의항은 [가능성], 3번 의항은 [짐작] 또는 [추측]의 의미를 기술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4번 의항은 '혹시'가 발화의 강도를 다소 누그러뜨릴 수 있는 헤지(hedge)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암시하기에 주목할 만하다.

『고려대한국어사전』의 1번 의항은 '혹시'를 조건의 연결어미 '-면' 또는 양보의 연결어미 '-라도'와 호응하는 부사로 기술하고 있으며, 2번 의항은 '혹시'를 [의혹]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로 파악하고 있다. 1번과 2번 의항 모두 '혹시'를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말"로 제시하고 있다.

『연세한국어사전」은 '혹시'를 [-확실성], [짐작], [가능성]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파악하고, '혹시'가 의문문 또는 조건절에 사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혹시나'와 '혹시라도'를 '혹시'의 강조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세 사전 모두 '혹시'를 기본적으로 [짐작], [의혹], [가정], [의문], [가능성]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로 파악하며, 조건이나 양보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와 함께 조건절 또는 양보절을 만드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기술한다. 그러나 세 사전 모두 '혹시'의 통사적 특성 및 의미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기술해, '혹시'의 용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에 다소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1.3. 논의의 구성

본고는 먼저 2장에서 ‘혹시’와 관련된 문법 개념을 살펴보며 논의의 밑바탕을 마련하고자 한다. 2.1장에서는 선행연구를 종합해 부사 ‘혹시’가 나타내는 양태 의미를 [불확실성]으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양태 의미를 인식 양태 개념 영역 스펙트럼에 제시하였다. 2.2는 ‘혹시’의 용법을 기술할 때 논의의 토대가 되는 ‘혹시’와 명제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혹시’의 용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3.1장에서는 ‘혹시’의 전형적인 용법을 말뭉치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3.2장에서는 ‘혹시’의 확장 용법을 살펴볼 것이다. 3.3에서는 ‘혹시’의 파생 부사인 ‘혹시나’와 ‘혹시라도’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3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혹시’의 의미적·화용적 특징을 정리해볼 것이다. 4.1장에서는 ‘혹시’의 [불확실성] 양태 의미의 유형을 살펴본 뒤, ‘혹시’가 그 [불확실성] 의미의 특성으로 인해 명제 부사로는 물론, 화행부사로도 기능하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4.2에서는 ‘혹시’의 화용적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명제 부사 및 화행 부사로 기능하는 ‘혹시’가 담화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살피고, 담화표지로 발달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5은 결론으로, 앞의 논의를 정리하며 서론에서 제기했던 연구 질문을 본 연구가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제시할 것이다.

2. 기본적 논의

2장에서는 ‘혹시’를 기술하는데 핵심적인 문법 개념인 ‘양태’의 정의와 종류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혹시’가 나타내는 양태 의미를 정립하여 논의의 밑바탕을 마련할 것이다.

2.1. 양태의 정의와 종류

선행연구에서 ‘혹시’는 일반적으로 양태부사로 분류되고, [추측], [의심], [가능성], [가정] 등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3) ㄱ. 혹시 저번의 일 때문에 감옥 간 거 아냐?
ㄴ. 혹시 나한테는 재능이 없는 게 아닐까?
ㄷ. 혹시 재판정 내에서 김 양이 발언이나 행동들이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나요?
ㄹ. 혹시 비 오면 운영 안 하나요?

[추측], [의심], [가능성], [가정] 의 의미는 무 자르듯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3)에 나타난 ‘혹시’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3)의 용례를 거칠게 나누어보자면, (3ㄱ)은 [추측], (3ㄴ)은 [의심], (3ㄷ)은 [가능성], (3ㄹ)은 [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3ㄱ)은 ‘저번의 일’을 근거로 하여 누군가가 감옥에 간 사태가 일어났는지 여부에 대한 화자의 ‘추측’의 의미를 ‘혹시’가 강조하고 있으며, (3ㄴ)은 ‘나한테는 재능이 없다’라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의심의 태도를 ‘혹시’가 나타내고 있다. (3ㄷ)에서는 ‘-수도 있-’이라는 가능 표현과 함께 ‘혹시’가 사용되어 [가능]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3ㄹ)에서는 ‘혹시’가 ‘-면’이 사용된 조건절에 나타나 가정적인 상황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3)에서 살펴본 [추측], [의심], [가능성], [가정]의 의미는 후행하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이다. 후행하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언어학에서는 '양태(modality)'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양태란 "절이나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1]·사태에 대한 주관적 태도·판단을 나타내는 범주"(박진호, 2011ㄱ:310)이다.[2] (3)에서 '혹시'는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명제·사태에 대한 주관적 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양태의 범주를 좀더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4) 양태의 범주(박진호, 2011ㄱ:310-311)

①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 명제에 대한 확실성의 판단, 믿음의 정도(commitment)를 나타냄

예 확실성(certainty), 개연성(probability), 가능성(possibility)

② 당위 양태(deontic modality): 사태의 바람직함에 대한 판단을

---

1) '혹시'가 양태 의미를 가진다면, '혹시'에 대한 논의에서 "명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인 '혹시'의 의미가 어디에 작용하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양태'가 작용하는 대상인 '명제'란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은 언어학적, 철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명제란 무엇인가"에 대해 기존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고만의 정의를 정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논의의 핵심에서도 다소 벗어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음의 김태인(2019)의 명제 정의를 수용하여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명제: 쓰임문의 한 단위(입말의 경우 발화 단위, 글말의 경우 문장) 안에서 찾아지는 핵심적인 내용이나 생각.
ㄱ. 명제에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의 정보를 부호화하는 부사어나 우언적 구성, 선문말어미는 명제 내부에 위치한다.
ㄴ. 진위 판별의 대상이 된다.
ㄷ. 추측, 평가의 대상이 된다.
ㄹ. 화행의 재료가 된다.
ㅁ. 명제는 평서문으로 표상된다(언어화하여 단독으로 제시할 때에는 서술어에 '-다'를 붙인다).

2)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양태의 정의와 양태 체계가 제시되었으나, 본고에서는 박진호(2011ㄱ)의 정의를 따라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본고가 양태의 개념 논의에서 참고한 연구로는 강소영(2002), 박재연(2009), 장경희(1985), Bybee, Perkins & Pagliuca(1994), Lyons(1977), Palmer(2001) 등이 있다.

나타냄. 또는 사태의 발생 책임이나 권리가 사태 내의 특정 참여자에게 있음을 나타냄.

예 의무(obligation), 허락/허용(permission)

③ 동적 양태(dynamic modality): 사태의 발성 가능성을 좌우하는 원인이 사태 내부의 참여자에게 있음을 나타냄.

예 능력(ability), 의도(intention, willingness), 바람(wish)

④ 감정 양태(emotive modality, evaluative modality): 명제에 대한 감정적 태도를 나타냄.

예 놀라움, 유감스러움, 아쉬움, 후회, 다행으로 여김, 두려움, 경계심 등

⑤ 증거 양태 : 정보의 근원, 입수 경로를 나타냄

예 직접 경험(direct evidence), 傳言(hearsay), 추론(inferred)

'혹시'가 문장에서 나타내는 [추측], [의심], [가능성], [가정] 등의 의미는 '명제에 대한 확실성의 판단, 믿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 즉 인식 양태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겠다. 즉, '혹시'는 인식 양태를 나타내는 부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2. '혹시'의 양태 의미

<표1>에 정리되었듯, 선행연구에서 이미 '혹시'의 양태 의미 및 기능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혹시'의 다양한 양태 의미를 제시한 것은 사실이나, 그 메타언어가 다소 산발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 <표1>에서 살펴보았던 '혹시'의 의미를 좀더 체계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인식 양태가 나타내는 '명제에 대한 확실성의 판단, 믿음의 정도' 역시 좀더 세부적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혹시'의 양태 의미로 [의심], [추측], [가능성], [가정], [미지] 등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혹시'의 양태 의미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메타언어가 필요해 보인다. Van der Auwera & Plungian(1988), Plamer(2001), Bybee, Perkins & Pagliuca(1994), 강소영(2002), 박재연(1999), 박진호(2011ㄱ, ㄴ) 등의 연구에서 인식 양태의 하위 영역을 제시하였는데, 세분화한 인식 양태의 의미를 살펴보면 '혹시'의 양태 의미를 좀더 정확히 기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인식 양태는 화자의 확신의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 '필연성(necessity)', '개연성(probability)', '가능성(possibility)'의 세 영역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한국어학계에서는 흔히 '추측'이라는 용어가 개연성이 높은(highly probable) 사태를 지시할 때 사용되는 것 같다. 명제가 참일 확률 또는 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50%만 넘어도 어떤 사태가 probable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90% 정도도 probable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추측'이라고 할 때는 확률이 50%를 갓 넘긴 것으로는 '추측'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며, 확률이 70-80%는 되어야 추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개연성이 더 상위 개념이고, 그 아래에 낮은 개연성(lower probability)과 추측, 즉 높은 개연성(higher probability)이 들어가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확실성'은 '문장에 표현된 명제가 확실하게 참', '추측'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참일 확률이 상당히 높음', '개연성'은 '거짓일 확률보다는 참일 확률이 높음', '가능성'은 '참일 확률이 0보다 높음'(박진호, 2011ㄴ:3)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혹시'가 나타내는 인식 양태는 어떤 특성을 가질까? 많은 선행연구에서 '혹시'의 의미는 다른 유사 부사와의 비교 연구 및 호응 표현 연구를 통해 파악되었다. '혹시'의 인식 양태 의미는 '혹시'와 함께 현대 한국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며, 어느 정도 양태 의미를 공유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아마'와 '설마'와의 비교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김지혜(2010)는 '아마'와 '혹시' 모두 불확실한 어떤 사실이나 상황을 표현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기에, [추측]이라는 의미를 공유한다고 본다. 그러나 '아마'는 '혹시'에 비해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는 [추측]을 나타내며, '혹시'는 화자가 어떤 근거에 기대지 않고 막연한 가능성이나

의심만으로 추측을 나타내는 부사로 파악한다(김지혜, 2010:177-178). ‘아마’가 나타난 말뭉치 용례를 살펴보자.

(5) ㄱ. 아까 제가 1시간 전쯤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상 없이 사용 가능했으니, 아마 지금도 가능할 겁니다.
ㄴ. 아마 게시판에 방법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ㄷ. 아마 확실할 겁니다.

(5)에 나타난 예문에는 화자가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추측을 했음이 나타난다. (5ㄱ)은 ‘내가 1시간 전쯤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상이 없었다’라는 근거, (5ㄴ)에는 화자의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한 화자의 판단이 나타난다. 즉, ‘아마’를 사용한 문장에서는 화자가 판단에 대한 나름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에 ‘확실하다’라는 표현과 ‘아마’의 추측 의미가 공기할 수 있는 (5ㄷ)과 같은 표현이 가능한 것이다. (5)의 ‘아마’는 ‘혹시’로 대체될 수 없다.

(6) ㄱ. *아까 제가 1시간 전쯤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상 없이 사용 가능했으니, *혹시* 지금도 가능할 겁니다.
ㄴ. **혹시* 게시판에 방법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ㄷ. **혹시* 확실할 겁니다.

(6)에서 볼 수 있듯, ‘혹시’는 화자가 나름의 확신을 가지는 [추측]의 의미와 호응하지 못한다. 추측이란, 확실히 알지 못하는 명제·사실에 대해,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그 명제가 참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혹시’가 나타내는 추측은 그 추측의 강도가 그리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혹시’는 불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 다소 약한 정도의 추측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부사라고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이는 판단을 내리는 근거에 대해 화자가 확실성을 갖는 정도가 낮을 때 ‘혹시’가 사용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혹시’와 ‘설마’를 비교해보자. 먼저 ‘설마’가 나타난 말뭉치 용례를 살펴보자.

(7) ㄱ. 설마 나한테도 그런 질문들이 들어온 건 아니겠지?
ㄴ. 설마 저거 반 이상은 빈 박스는 아니겠지?
ㄷ. 대학을 다닐 때에는 설마 제가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7ㄱ)과 (7ㄴ)은 ‘설마’ 대신 ‘혹시’가 사용되어도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다만 ‘혹시’가 사용되었을 경우 후행하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의심의 태도가 다소 누그러든다고 볼 수 있겠다. (7ㄷ)은 ‘미래에 내가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명제에 대해 과거의 화자가 가졌던 강한 불신을 드러내는 문장인데, 이때 ‘혹시’가 ‘설마’ 대신 사용되면 다음과 같이 어색한 문장이 된다.

(8) *대학을 다닐 때에는 *혹시* 제가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설마’는 명제의 성립 확률을 매우 낮게 볼 때 사용하는 부사로, ‘~리가 없다’ 같은 매우 강한 의미의 부정적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과 공기한다. 그러나 ‘혹시’와 ‘설마’는 정도성이 약간 다를 뿐 둘 다 명제의 성립 확률을 낮게 보기에, ‘혹시’와의 공기가 매우 어색한 ‘아마’와는 달리 두 부사가 나란히 사용되는 용례가 다수 발견된다.

(9) ㄱ. 혹시 거짓말을 하나?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ㄴ. 머릿속으로는 이미 다 끝났다는 걸 알면서 가슴으로는 미련이 남아서 혹시, 설마, 하면서 차마 못 버렸네요.
ㄷ. 설마하는 마음보다는 혹시라는 합리적 의심으로 부서를 정리 정돈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설마’의 인식 양태 의미 영역은 ‘가능성’ 정도에만 해당할 것이다. 반면 ‘아마’는 명제의 성립 확률을 높게 볼 때 사용하는 부사이다. ‘혹시’는 어떤 명제가 참일 확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와 ‘설마’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부사로 파악할 수 있다.

이쯤에서 ‘혹시’가 나타내는 인식 양태 의미를 정리해보도록 하자. 박진호(2011ㄱ)와 Van der Auwera & Plungian(1988)를 참고해 인식 양태의 의미 영역을 제시한 김다미(2018:24)의 도식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			
가능성 (possibility)	개연성 (probability)	추측	확실성(certainty)
◄			►
낮음	<화자의 판단에서 명제가 참일 확률>		높음
인식적 가능성 (epistemic possibility)		인식적 필연성 (epistemic necessity)	

<표 3> 김다미(2018)의 “인식 양태가 포괄하는 개념적 영역”

김다미(2018)에서는 위와 같이 인식 양태의 의미 영역에서 가능성~추측의 영역을 ‘불확실성(uncertainty)’으로 파악하고 음영으로 표시했다. 즉, 확실성의 영역 밖에 있는 것들을 모두 [불확실성]의 의미 영역에 포함시킨 것인데, 불확실성의 영역 폭이 상당히 넓은 것이다(김다미, 2018:24).

‘설마’와 ‘아마’의 의미와 비교해보았을 때, ‘혹시’가 나타내는 인식 양태의 의미 영역은 김다미(2018)이 지적한 ‘가능성~추측’의 영역, 즉 [불확실성]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혹시’가 나타내는 [불확실성]의 영역은 <표3>에 제시된 영역보다는 좁은 것으로 생각된다. ‘혹시’가 나타내는 인식 양태의 개념 영역을 스펙트럼에 표시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table>
<tr><td colspan="6">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td></tr>
<tr><td>가
possi</td><td>능 성
bility</td><td>개연성
(probability)</td><td>추</td><td>측</td><td>확실성(certainty)</td></tr>
<tr><td colspan="6">←→
낮음 <화자의 판단에서 명제가 참일 확률> 높음</td></tr>
<tr><td colspan="3">인식적 가능성
(epistemic possibility)</td><td colspan="3">인식적 필연성
(epistemic necessity)</td></tr>
</table>

<표4> ‘혹시’가 나타내는 인식양태의 의미 영역

앞으로 본고는 ‘혹시’의 [불확실성]으로 설정하고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혹시’가 인지 동사, 가능 표현과 높은 빈도로 공기하는 것도 ‘혹시’가 갖는 [불확실성]의 양태 의미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0) ㄱ. 그때 혹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ㄴ. 혹시 언제 개봉했는지 기억나십니까?
ㄷ. 혹시 판매 장착하는 곳 아시나요?

(11) ㄱ. 혹시 누구에겐가 도움이 될 수 있을 후기를 적어봅니다.
ㄴ. 혹시 어디서 구매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ㄷ. 혹시 어떤 주제인지를 밝히실 수가 있습니까?

인지 동사나 가능 표현이 사용된 서술어는 [불확실성]의 의미기능을 한다는 측면에서 의문문과 공통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인지 동사 서술어가 사용된 (10)의 경우, (10ㄱ)은 ‘궁금하다’ 즉,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어, 문장이 기술하는 사태에 대한 화자의 [불확실성]을 나타낸다. (10ㄴ)과 (10ㄷ) 역시 인간의 인지 작용 의미에 대해 의문이 표현되어 역시나 문장이 기술하는 사태에 대한 화자의 [불확실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11)은 서술어로 '-수 있-'이라는 가능 표현이 사용된 용례이다. '능력'이라는 당위 양태는 '가능성'이라는 인식 양태 의미로 발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Bybee, Perkins & Pagliuca, 1994:199), (11)에서의 '-수 있-'도 가능성의 인식 양태 의미로 발달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가능성' 역시 [불확실성]의 양태 의미 영역에 포함된다.

이처럼 문장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이 '혹시'의 사용을 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혹시’의 용법

3장에서는 2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혹시’의 사용 환경을 분석할 것이다. 말뭉치에서 자동검색이 가능한 용례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맥락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용례를 가져왔다.

3.1. ‘혹시’의 전형적 용법

말뭉치 용례를 검토한 결과, ‘혹시’의 전형적인 용법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었다. ‘혹시’는 판정의문문 앞, 내포의문문 앞, 조건절 앞, 양보절 앞에서 가장 빈번하게 관찰되었다.

3.1.1. 판정의문문 앞

‘혹시’는 판정의문문 앞에서 사용되는 것이 가장 원초적이며 기본적인 용법으로 보인다. 이 경우는 판정의문문이 모절(matrix sentence)에 사용되는 것만을 말한다.

그런데 판정의문문 용례는 세분화하여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박영순(2007:251)은 의문문이 형식과 실제로 이해·전달되는 의미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는 문형임을 지적하는데, 의문문의 성립조건에 따라 의문문을 ‘질문의문문’, ‘요청의문문’, ‘수사의문문’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질문의문문은 청자의 ‘언어적 응답’을 필수로 하는 의문문, 요청의문문은 청자의 ‘행동적 응답’을 필수로 하며, 수사의문문은 청자의 응답이 필수는 아닌 의문문이다. 의문문이 갖는 세부적인 의미를 나누어 말뭉치 용례를 분석한다면 ‘혹시’의 의미를 보다 정확히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박영순(2007)의 의문문 분류를 기준으로 판정의문문 앞에 나타나는 ‘혹시’를 분석해볼 것이다.

① 질문의문문 앞의 ‘혹시’

(12) ㄱ. 혹시 외근 나가신 김 과장님 커피는 샀니?
ㄴ. 혹시 그 전에 자동차 운전은 하셨습니까?
ㄷ. 혹시 해결 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ㄹ. 이런 문화를 혹시 접해본 적이 있나요?
ㅁ. 혹시 강 소위님 아니십니까?
ㅂ. 혹시 제휴사 카드 없으세요?

(12)은 화자에게 ‘질문’을 하는 가장 순수한 판정의문문 용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혹시’의 [불확실성] 양태 의미가 의문문의 발화수반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혹시’가 의문문에서 빈번하게 실현되는 것은 ‘혹시’의 [불확실성] 정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듯하다. ‘호실제로 ‘혹시’보다 명제의 성립 확률을 낮게 보는 ‘설마’ 역시 다른 부사들에 비해 의문문과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다.[3)]

② 요청의문문 앞의 ‘혹시’

‘혹시’의 특징으로는, 판정의문문이면서 [요청]의 간접화행을 갖는 문장에서 매우 활발히 사용된다는 점이다.

(13) ㄱ. 혹시 이삿짐 노끈 좀 있어요?
ㄴ. 저 혹시 나 차 좀 빌려줄 수 있어?
ㄷ. 혹시 누구 이거 취소해보신 분 계신가요?[4)]

---

3)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양태부사와 문장 유형 호응 관계는 보일평(2017)을 참고할 수 있다.

4) (13ㄷ)의 ‘누구’의 경우 문장에서 의문사가 아닌 비한정사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3ㄷ)을 판정의문문으로 판단하였다. 한국어에서 의문사는 아무런 형태 변화 없이 비한정사로 전용되어 사용될 수 있다(박진호, 2007:134). 말뭉치에서도 의문사가 비한정사로 전용되어서 사용된 용례가 많이 관찰되었다. 의문사

박영순(2007)에서 '요청의문문'으로 분류되는 (13)과 같은 용례는 요청의 간접화행을 나타내는 의문문이라고 할 수 있다. (13ㄱ)은 '이삿짐 노끈을 달라', (13ㄴ)은 '차를 빌려달라', (13ㄷ)은 질문의문문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 좀더 맥락을 확장하여 해석하자면 '취소해본 사람이 있다면, 내가 취소하는 것을 도와달라'라는 요청 화행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3)의 용례에서 '혹시'는 각각 청자가 '이삿짐 노끈을 마련해줄 수 있는지'(13ㄱ), '차를 빌려줄 수 있는지'(13ㄴ), '취소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나타낸다. 즉 요청 화행이 화자에 의해 수행될 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혹시'가 강조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③ 수사의문문

많은 연구에서 의문문의 기능 중 청자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의문문을 설정한다. 즉, 청자에게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보다는 화자의 생각, 대체로 의문을 표출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있는 의문문이다.

(14) ㄱ. 혹시 거짓말을 하나?
ㄴ. 혹시 우리 법의 문제는 없는 걸까요?
ㄷ. 혹시 다치기라도 한 것은 아니겠지요?
ㄹ. 혹시 그게 무슨 범죄 조직 같은 건 아니었을까요?
ㅁ.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 없어요?

(14)의 용례는 의문문에 대한 청자의 응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발화의 목적이 화자의 의문의나 추측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영순(2007)에서는 수사의문문을 "확인, 추측, 의심, 반복, 감탄, 주저, 한탄, 강조"(박영순, 2007:251) 등의 하위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으나, '혹시'가 사용된 의문문에서는 확인, 추측, 의심 정도의 의미가 나타나는 것

가 의문사 용법인지, 비한정사 용법인지는 문맥에 따라 연구자가 판단하였다.

같다. 손남익(1995:225)은 '혹시'와 같은 추정을 나타내는 서법부사(양태부사)는 의문문과 호응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지적한다.

박종갑(1986)은 한국어 의문문을 상대방에게 응답의 의무를 부과하는지에 따라 의문의 의미 기능을 '질문'과 '의문제기'로 나누는데, '의문제기'는 "화자가 자신이 모르거나 불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나, 또는 의심스러워 하는 사실 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능"(박종갑, 1986:52)을 말한다. (14)에서는 '혹시'가 모두 '의문제기'의 의미기능을 갖는 의문문과 함께 사용되었다. '혹시'는 이렇게 청자의 응답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추측], [의심] 등을 나타내는 의문문에서는 적극적으로 상용되는데, 이때 의문문에는 (14ㄴ~ㅁ)과 같이 부정의문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관찰되었다. 박종갑(1984)은 의문문의 긍정형식과 부정형식이 화자의 질문태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지적하는데, 그에 따르면 긍정의 가정을 부정의문문으로 묻는 것은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운 질문 태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박종갑, 1984:169-170). 즉 '혹시'는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운 의문 제기를 하는 의문문과 호응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혹시'와 함께 나타나는 수사의문문에는 (14ㄹ), (14ㅁ)처럼 비한정사가 자주 사용되는 듯 하다.

정리하자면, 판정의문문이 '혹시'의 출현을 허가(license)해준다고 할 수 있다. 박진호(2011ㄱ:317-318)는 문장 유형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는 양태적 의미도 부차적으로 지니는 일이 흔히 있는데, 의문문의 경우 대가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비단언(non-assertion)이라는 태도를 나타냄을 지적한다. '화자의 비단언'은 명제 내용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다. '혹시'는 [불확실성] 의미 때문에 의문형 어미와 잘 공기하는 것이다.

인식 양태와 의문문의 상관관계를 다룬 박재연(2005)에서는 의문문의 본질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을 소개한다. 하나는 의문문의 본질을 '정보의 요구'로 파악하는 것으로, 화자가 청자에게서 정보를 구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를 의문문에 대한 통보적 해석(commutnicative interpretation)이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화자가 담화에서 자신이 어떤 사태에 대해 알지 못함을 표현하는 것, 즉 '화자의 무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데, 이는 의문문에 대한 양태적 해석(modal interpretion)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박재연, 2005:105). 박재연(2005)은 두 입장 모두 정당하나, 의문문을 양태적으로 해석하는 관점에 서면, 인식 양태의 의미영역과 의문문의 의미 영역을 '화자의 앎의 척도'라는 단일한 연속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박재연, 2005:105). 의문문의 문장 유형을 표시하는 요소가 인식 양태적 의미를 표현할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의문형 어미라고 해도, 청자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통보적' 측면이 적극적으로 부각되지 않는 경우에는 '화자의 무지의 표출'이라는 의문문의 양태적 측면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어떤 경우에는 의문형 어미가 화자의 판단과 관련한 의미를 나타낼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박재연, 2005:106).

그리하여, '혹시'가 판정의문문 앞에 적극적으로 출현하는 이유를 의문문의 인식 양태와 '혹시'의 [불확실성] 양태 의미의 호응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3.1.2. 내포의문절 앞

‘혹시’가 판정의문문에 삽입된 내포의문절 앞에 실현된 용례가 말뭉치에서 다수 관찰되었다. 결국 의문문 앞에 ‘혹시’가 실현된다는 점에서는 3.1.1의 용례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겠으나, 용례에서 특정한 형식이 빈번하게 관찰되기에 용법을 따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혹시’와 문장유형의 상관관계를 고찰한 선행연구에서, ‘혹시’와 공기한다고 제시한 추측 표현들, 즉 ‘-ㄹ까’, ‘-ㄹ지(도) 모르-’, ‘-ㄴ가’ 등이 실질적으로 내포의문절을 형성하는 어미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혹시’와 이들 표현에 대한 논의는 내포의문절의 관점에서 진행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내포의문절을 형성하는 어미로는 ‘-ㄴ지’, ‘-ㄹ지’. ‘-ㄴ가’, ‘-ㄹ까’, ‘-나’ 등이 있는데, 이들 모두 말뭉치에서 ‘혹시’와 함께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의존명사 ‘줄’도 ‘혹시’와 함께 내포의문절을 형성하는 경우가 관찰되었다.

본고는 내포의문절이 판정의문문인지, 설명의문문인지에 따라 용례를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내포의문절의 성격에 따라 ‘혹시’의 양태 의미가 작용하는 영역이 다른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① 내포의문절이 판정의문인 경우

(15) ㄱ. 여전히 교수가 최선의 길인지, 혹시 내게 다른 재능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의심해본다.

ㄴ. 혹시 재입고 계획이 있으신지 알 수 있을까요?

ㄷ. 혹시 무슨 표시라도 해놓았을지 모르는 일이잖소?

ㄹ. 혜안은 혹시 자신의 음모가 발각된 것이 아닌가 하고 가슴이 뜨끔했다.

ㅁ. 혹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 궁금합니다.

ㅂ. 이 폰트 혹시 무슨 폰트인 줄 아시나요?

(15)의 예문을 모절과 내포절을 구분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6) ㄱ. 여전히 교수가 최선의 길인지, 혹시 {{내게 다른 재능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니-}ㄴ지} 늘 의심해본다.

ㄴ. 혹시 {{재입고 계획이 있으시-}ㄴ지} 알 수 있을까요?

ㄷ. 혹시 {{무슨 표시라도 해놓았-}을지} 모르는 일이잖소?

ㄹ. 혜안은 혹시 {{자신의 음모가 발각된 것이 아니-}ㄴ가} 하고 가슴이 뜨끔했다.

ㅁ. 혹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 궁금합니다.

ㅂ. 이 폰트 혹시 {{무슨 폰트이-}ㄴ줄} 아시나요?

(16ㄱ), (16ㄴ)에는 내포의문절을 형성하는 어미 '-ㄴ지'가, (16ㄷ)에는 '-ㄹ지'가, (16ㄹ)에는 '-ㄴ가'가, (16ㅁ)에는 '-나'가, (16ㅂ)에는 의존명사 '줄'이 사용되어 내포절을 형성하였다. 이때 '혹시'의 작용역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혹시'가 모절을 수식하는 해석도 가능하고, 간접의문절을 수식하는 해석도 가능하다.

② 내포의문문이 설명의문인 경우

의문사가 사용된 내포의문절 앞에 '혹시'가 나타나는 용례도 다수 관찰되었다.

(17) ㄱ. 독립신문의 초대 주필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ㄴ. 혹시 어떤 주제로 서울대회를 이끌어 가실지 복안이 있으십니까?

ㄷ. 혹시 어디서 구매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ㄹ. 5번째 차량이 혹시 무슨 차량인 줄 알 수 있을까요?

ㅁ. 혹시 그때 왜 헤어지자고 했는지 물어봐도 돼?

모절과 내포절을 구분해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18) ㄱ. 독립신문의 초대 주필이 혹시 {누구}ㄴ지} 아세요?
ㄴ. 혹시 {{어떤 주제로 서울대회를 이끌어 가시-}ㄹ지} 복안이 있으십니까?
ㄷ. 혹시 {{어디서 구매하셨느-}ㄴ지} 알 수 있을까요?
ㄹ. 5번째 차량이 혹시 {{무슨 차량이-}ㄴ 줄} 알 수 있을까요?
ㅁ. 혹시 그때 {{왜 헤어지자고 했느-}ㄴ지} 물어봐도 돼?

이때 '혹시'는 모절과 내포절이 모두 판정의문일 때와는 달리, '혹시'가 모절의 서술어를 수식하는 해석만 가능하다. 간접의문절을 수식하는 해석은 불가능하다.

(15), (17)의 예문에서는 내포의문절을 형성하는 어미 '-ㄴ지, -ㄹ지, -(으)ㄴ가, -(으)냐, -(으)ㄹ까, -나'와 의존명사 '줄'의 [불확실성] 양태 의미가 '혹시'의 출현을 허가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5), (17)에 나타난 모절에는 '알다', '모르다', '묻다', '의심하다', '궁금하다',' 복안(腹案)'과 같은 인간의 인지를 나타내는 서술어 또는 명사가 사용되어 위의 발화가 인식 양태와 관련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말뭉치에서 자주 등장하는 어미 '-ㄴ지'에 대해 김다미(2018:16)에서는 '-ㄴ지' 절이 통사적 위치가 어디인지에 상관없이 단언(assertion)의 정도가 약하며, 그 절에 담긴 정보가 확실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ㄴ지'가 형성하는 내포의문절에 '혹시'가 함께 출현하는 현상은 김다미(2018)가 지적했듯 '-ㄴ지'의 '인식적 불확실성' 양태 의미에서 비롯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ㄴ지'의 양태 의미와 의문 기능이 '혹시'의 출현을 허가했고, '혹시'의 [불확실성] 의미가 '-ㄴ지'의 의미·기능과 호응한 것이다.

(15ㅂ)과 (17ㄹ)의 '줄' 역시 주목할만하다. '줄'은 의존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내포의문절을 형성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정연주(2016)는 현대 한국어에서 의존명사 '줄'이 주로 서술어 '알다, 모르다'와 함께 쓰이고 있으며, 후기 중세국어에서 내포 의문절을 형성하던 '줄'이 기능이 현대 한국어에까지 남아있음을 지적한다. '줄'은 과거부터 '알다'와 함께 쓰일 때, '줄'에 선행하는 내용은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에 반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중의성을 띄었다(정연주, 2016:16-17). 사실에 대한 이러한 중의성이 '줄'이 간접의문절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즉 '줄'의 [불확실성] 의미가 '혹시'의 사용을 허가한 것이다.

그 외에 말뭉치에서 내포의문절 어미 '-ㄹ까'가 사용된 구문 '-ㄹ까 싶-'과 '-ㄹ까 보-'가 '혹시'와 함께 등장하는 것이 빈번하게 관찰되었다.

(19) ㄱ. 그냥 개꿈일 것 같기도 하지만 혹시 이런 것도 해몽이 있을까 싶어서요.

ㄴ. 저는 아버님이 혹시 엉뚱한 말씀을 하시진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ㄷ. 혹시 실수할까 봐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아주머니의 이름이 이순례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거든요.

ㄹ. 혹시 도망이라도 칠까 봐 옥두는 명진이 손을 꽉 잡고 있었다.

(19ㄱ), (19ㄴ)은 '-ㄹ까 싶-'이 사용된 문장으로, 문장에서 내포의문절 내의 명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듯하다. (19ㄷ), (19ㄹ)은 '-ㄹ까 보-'가 사용되었는데, 내포의문절의 사태가 실현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의미는 '-ㄹ까'의 [불확실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사태의 실현을 화자가 확신할 수 없는 데에서 비롯된 화자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때 '혹시'는 내포의문절의 사태의 실현에 대한 [불확실성]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3.1.3. 조건절 앞

조건문이란 “두 개의 사건이나 사태가 존재하고, 이들 중 어느 한 사건이나 사태가 다른 것이 성립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경우”(박승윤, 1988:1)를 말한다. 조건문은 ‘조건’의 관계로 연결된 주절과 종속절로 이루어진 복문이다(Dancygier, 1999:1). 이때의 종속절을 본고에서 ‘조건절’로 지칭할 것이다. 조건절은 ‘혹시’의 출현을 허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에서 조건은 ‘-면’, ‘-거든’, ‘-야’와 같은 연결어미에 의해 표시되며(박승윤, 1988:1), ‘경우’ 같은 어휘적 수단에 의해서도 조건 의미가 실현되기도 한다. ‘혹시’의 양태 의미는 조건절에서 사용될 때 조건의 의미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 같다.

(20) ㄱ. 혹시 제안이 오면 수락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ㄴ. 혹시 당선 가능성 지역을 예측하고 갔더라면 상당히 어제 실망 했을 것 같은데요.
ㄷ. 혹시 누가 찾거든, 한 바퀴 돌아보고 오겠다더라고 말하라.
ㄹ. 혹시 편지라도 한 장 쓰고자 할 경우, 주인은 가장 질이 나쁜 펜과 잉크를 내놓는다.

(20ㄱ~ㄷ)은 각각 조건 연결어미 ‘-면’, ‘-더라면’, ‘-거든’이 사용된 조건절이다. ‘-면’은 한국어에서 가장 무표적인 조건 어미이며, ‘-더라면’은 실현되지 않은 과거 상황을 전제로 하였을 때의 조건 의미를 나타낸다. ‘-거든’은 불확실성이나 불가능성이 짙은 조건절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보다는 확실성이 있는 전제를 도입하는 특징이 있다(서정수, 2005:274). ‘-거든’이 이끄는 조건절 뒤에는 명령, 요청, 약속 등의 화행을 갖는 주절이 오는 것이 자연스러움이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었는데(서정수, 2005; 이희자·이종희, 1994; 윤평현, 2005 등), (20ㄷ)의 주절 역시 명령, 당부 정도의 화행을 수행한다. (20ㄹ)에서는 ‘경우’가 조건 의미를 나타낸다.

그렇다면 ‘혹시’는 조건절에서 어떤 의미를 나타낼까? 가장 무표적인 조

건 어미인 '-면'과의 호응관계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조건은 전제와 결과가 모두 사실인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다(박승윤, 1988:5). 박승윤(1988:6)은 전제의 사실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신념에 따른 조건의 세계를 '(i) 사실 세계(Given) (ii) 불확실세계(Hypothetical) (iii) 가정세계(Counterfactual)'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제시한다. 한국어에서 '-면'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조건 세계를 모두 표지한다(박승윤, 1988:7).

(21) (A) 사실 세계: 열 시가 되면, 학교에 가자.
(B) 불확실 세계: 내일 비가 오면, 집에서 쉬자.
(C) 가정 세계: 해가 서쪽에서 뜨면, 만물이 죽는다.
(박승윤, 1988: 7)

그런데 '혹시'는 현실 세계에서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나 사실적 조건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 같다. 따라서 '혹시'는 (B)의 경우에만 함께 쓸 수 있다.

(22) '혹시'의 경우
(A) 사실 세계: *혹시 열 시가 되면, 학교에 가자.
(B) 불확실 세계: 혹시 내일 비가 오면, 집에서 쉬자.
(C) 가정 세계: *혹시 해가 서쪽에서 뜨면, 만물이 죽는다.

결국 '혹시'는 <표4>의 의미 영역에 해당하는 [불확실성] 의미의 조건과만 호응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한 조건 의미와 '혹시'의 [불확실성] 양태 의미가 상호작용해, 조건절 앞에서 '혹시'의 출현을 허가하게 된 것이다. 다음과 같이, '혹시'는 실현불가능한 세계를 전제로 나타내는 조건(23ㄱ)이나, 확실한 사실을 전제로 도입하는 조건(23ㄴ)에서 사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23) ㄱ. *혹시 날개가 있다면, 날아서 출근할 텐데.
ㄴ. *혹시 여름이 되면, 습도가 높아진다.

그런데 '혹시'가 나타난 조건문에서, 조건절과 주절이 명제 내용과 관계를 맺는다고 보기 어려운 용례가 다수 관찰되었다.

(24) ㄱ.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ㄴ. 혹시 불이 있으면 좀 빌려주겠소?
ㄷ. 혹시 오늘 간식으로 무얼 해줄까 고민되신다면 저와 함께 샌드위치 만들어 보시겠어요?

Dancygier(1998:89)에서는 주절에 나타난 화행의 성공적인 수행을 보장하는 조건절이 있음을 밝히며, 이때 주절과 조건절의 조건 관계를 '화행 관계'로 파악한다. 영어에서 조건을 나타내는 if절이 주절의 명제 내용보다는 주절에서 수행된 화행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인데(Heringer 1971, Davison 1973, Tedeschi 1977; Dancygier, 1998:89에서 재인용), '혹시'가 사용된 조건문도 이러한 조건 관계가 나타나는 듯하다.

(24ㄱ)과 (24ㄴ)은 조건절의 사태가 실현되었을 때, 주절의 요청 화행이 주절의 요청 화행이 수행됨을 나타내는데, 이때 조건절에 '혹시'가 사용됨으로써, 조건절의 사태가 실현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24ㄷ) 역시 조건절의 사태가 실현되었을 때, 제안, 권유의 화행이 수행됨이 나타난다. Sweetser(1990)에서는 이러한 화행 관계로 맺어진 조건문을 '화행 조건문(speech-act conditonals)'이라 부르는데, 모든 화행 조건문은 "If [protasis], then let us consider that I perform this speech act(i.e. the one represented as the apodosis)"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는 사실을 공유한다고 밝힌다(1990:121). 즉, (24)의 조건문은 화행 조건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Dancygier(1998:91)는 화행이 단언되지 않은 if의 영향권 안에서 표현되

는 것은 화자가 자신의 믿음을 청자가 공유할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한다. 한국어에서 '혹시'가 사용된 조건절 역시 마찬가지인 듯하다. (24ㄱ)은 '(어떤 정보를) 아는 사람이 있다', (24ㄴ)은 '(청자에게) (담뱃)불이 있다', (24ㄷ)은 '오늘 간식으로 무얼 해줄까 고민된다'에 대한 [불확실성]을 '혹시'를 통해 강조함으로써, 청자에게 보다 조심스러운 태도를 나타내거나 선택지를 부여한다. 이는 Lakoff(1973)의 공손성 격률(Rules of politeness) 중 "선택지를 제시하라(Give options)"(Lakoff, 1973:298)와 상통한다. 정리하자면, '혹시'는 [불확실성] 양태 의미로 인해 화행 조건문에서 사용되면서 공손성을 나타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3.1.4. 양보절 앞

‘혹시’는 양보(concessive)를 나타내는 여러 어미와 공기하며, 양보절 앞에서 출현을 허가받는다. 양보란 ‘하나의 사태/지식이 다른 사태/지식 혹은 화행에 기여한다는 기대를 부정하는 것’(이순욱, 2017:1)이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조건과 양보는 개념적으로 엄밀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지만(서정수, 2005; 박승윤, 2007; 이순욱, 2017; 이의종, 2020 등), 본고에서는 연결어미에 따라 조건절과 양보절을 구분해 논의할 것이다.

말뭉치에서 ‘혹시’가 양보절 앞에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5) ㄱ. 혹시 어쩌다가 비슷한 일을 겪게 된다고 해도, 결코 지난번과 같은 어리석은 짓은 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ㄴ. 이대로 가다간 나중에 경선에서 혹시 승리하더라도 최종 선거에서는 승리를 확신 못하게 생긴 거야.

ㄷ. 혹시 중간에 필름이 끊기고 편집이 튀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모든 게 타란티노 감독의 설정이랍니다.

ㄹ.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겨도 자네는 꼭 살아서 내 최후를 알려주기 바란다.

양보는 사태가 사실임을 나타내는지, 사태가 사실인지에 대해 중립적인지에 따라 사실적 양보(factual concessive)와 조건적 양보(conditional concessive)로 나눌 수 있는데(이순욱, 2017:1), ‘혹시’가 사용된 절에 나타내는 양보의 의미는 조건적 양보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사태가 사실인지에 대해 중립적이다는 뜻은, ‘사태의 사실 여부에 대해 화자가 불확실하다’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조건적 양보의 [불확실성] 양태 의미가 ‘혹시’의 출현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3.2. ‘혹시’의 확장 용법

3.1의 논의를 통해 ‘혹시’가 후행하는 의문문, 조건절, 양보절의 [불확실성]의미와 호응해 의미를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말뭉치에서 ‘혹시’가 설명의문문과 직접 결합하는 용례가 다수 관찰되었다.

(26) ㄱ.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ㄴ. 혹시 지역구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까?
ㄷ. 혹시 언제 이사 오셨어요?
ㄹ. 혹시 다른 후보 왜 지지하시나요?
ㅁ. 혹시 화장실이 어디 있죠?
ㅂ. 혹시 동아리 활동은 몇 개 정도 했었어요?

위와 같은 용법은 지금까지 다루었던 ‘혹시’의 전형적인 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26)에서 ‘혹시’는 문장에서 더 이상 인식양태부사로 기능하지 않으며, 후행하는 문장의 명제와 통사적·의미적으로 관계를 맺지 못한다. 진리치를 갖지 못하는 설명의문문에는 ‘혹시’의 [불확실성] 양태의미가 작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리학적으로 ‘혹시’는 설명의문문과는 공기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혹시’의 용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후박문(2021: 47)에서는 “부사가 담화 맥락에서 점점 부사의 용법을 벗어나 담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한다. (26)에서 ‘혹시’는 부사의 기능을 수행하기 보다는 담화 맥락에서 담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질문에 대한 화자의 공손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혹시’의 [불확실성] 의미가 이러한 담화 기능을 낳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3.1에서 살펴보았듯 ‘혹시’는 전형적인 용법에서도 그 [불확실성]

의미로 인해 문장의 발화 수반력(illocutionary force)를 약화시키는 기능을 하였다. 이러한 기능이 점차 부사의 기능을 압도하면서 '혹시'의 부사적 의미는 사라지고, 담화 기능만이 남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혹시'의 이러한 변화 양상과 특징에 대해서는 4장에서 좀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혹시'가 설명의문문과 함께 쓰이는 이러한 확장 용법은 중장년층에게는 매우 어색하지만, 현재 20대 젊은 화자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된다.

3.3. ‘혹시나’와 ‘혹시라도’

‘혹시나’와 ‘혹시라도’는 사전 및 선행연구에서 대체로 ‘혹시’의 강조 표현으로 기술된다.

(27) ㄱ. {혹시/혹시나/혹시라도} 유럽연합이 추가로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ㄴ. {혹시/혹시나/혹시라도} 돈이 어디서 새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야 한다.

ㄷ. {혹시/혹시나/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적어주세요.

ㄹ. {혹시/혹시나/혹시라도} 밉고 원망스러운 사람이 있더라도 함부로 관계를 끊지 않도록 하자. 대체 가능한 예문

‘혹시’만 사용하여도 명제의 성립 확률을 그다지 높지 않게 보는데, ‘혹시나’나 ‘혹시라도’는 ‘혹시’보다 명제의 성립 확률을 더 낮게 보는 듯 하다. 말뭉치에서도 ‘혹시나’와 ‘혹시라도’가 ‘혹시’를 대체할 수 있으며, ‘혹시’의 [불확실성] 의미를 강조하는 용례가 역시 많이 관찰되었으나, ‘혹시’가 대체할 수 없는 ‘혹시나’와 ‘혹시라도’의 용례 역시 많이 관찰되었다. 3.3에서는 ‘혹시나’와 ‘혹시가’ 단순히 ‘혹시’의 유의어 또는 강조표현으로 볼 수 없음을 알아보고, ‘혹시’, ‘혹시나’, ‘혹시라도’의 의미를 보다 정교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3.3.1. 혹시나

먼저 ‘혹시나’의 경우를 알아보자. ‘혹시나’의 사전 기술은 다음과 같다.

『표준국어대사전』	부사 1. ‘혹시’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예 혹시나 일이 잘못되면 곧 알려라. 예 그래도 혹시나 그가 올까 기다렸지만 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고려대한국어대사전』	부사 1.((주로 ‘하다’와 함께 쓰여))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의 하나라도. 예 그는 혹시나 하고 복권을 사 보았지만 역시나 당첨되지 않았다. 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상훈이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2. <기본의미> 연결 어미 ‘-면’이나 ‘라도’와 함께 쓰여, 이 말이 포함된 앞 내용이 가정된 일이나 상황이며 뒤 내용이 그에 따른 결과나 반응을 말할 때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 주는 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실적 상황에 대해 주로 쓰인다. ‘혹시1(或是)’를 좀더 분명하게 이르는 말이다. 예 아이는 소풍 가는 날 혹시나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해서 하늘을 몇 번이나 보았다.
『연세 한국어 사전』	부사 (부사) (강조하는 말로) 혹시.

<표6 ‘혹시나’의 사전 기술>

『표준국어대사전』,『고려대한국어대사전』,『연세 한국어 사전』모두 ‘혹시나’를 ‘혹시’의 강조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다. ‘혹시나’를 ‘혹시’의 단순한 강조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용례는 말뭉치에서 다수 관찰된다.

(28) ㄱ. 혹시나 이거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ㄴ. 부모들은 아이가 혹시나 '나쁜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항상 신경이 쓰인다.

ㄷ. 혹시나 필요하시면 손 들어주세요.

ㄹ. 혹시나 그때 가서 변심하더라도 100% 취소, 환불이 가능한 조건이거든요.

(28ㄱ)은 판정의문문 앞에 결합한 '혹시나', (28ㄴ)은 판정의문문에 삽입된 내포의문절 앞의 '혹시나', (28ㄷ)은 조건절 앞에 사용된 '혹시나'이다. 이 세 용법의 경우 '혹시'와 '혹시나'의 분포는 큰 차이가 없는 듯 하며, '혹시나'는 '혹시'의 [불확실성] 의미를 좀더 강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혹시'가 대체할 수 없는 '혹시나'만의 용법 역시 관찰되었다. 바로『고려대한국어대사전』의 1번 의항에서 지적한 '혹시나 하-'라는 관용구이다. '혹시나 하-'는 '혹시나'가 포함된 말뭉치 용례를 무작위로 500개 추출한 말뭉치에서 약 140개의 빈도수를 차지할 정도로 자주 발견되었다. 또한 '혹시나 하-' 만큼은 아니지만 '혹시나 싶-' 역시 말뭉치에서 자주 등장하였다.

(29) ㄱ. 혹시나 하는 생각에 공모에 응했고, 최종 10개 팀에 선정됐다.

ㄴ. 혹시나 해서 미국 사이트에서도 찾아봤는데, 없던데요!

ㄷ. 분명히 돼지고기 1800g을 샀는데, 혹시나 싶어 집에 와서 우리 저울로 달아 보았더니 1500g밖에 되지 않았다.

(29ㄱ)의 경우 '혹시나'를 '혹시' 또는 '혹시라도'로 바꾸었을 때 다음과 같이 매우 어색하게 느껴진다.

(30) ㄱ. {*혹시, *혹시라도} 하는 생각에 공모에 응했고, 최종 10개 팀에 선정됐다.

ㄴ. {*혹시, *혹시라도} 해서, 미국 사이트에서도 찾아봤는데, 없던데요!

ㄷ. 분명히 돼지고기 1800g을 샀는데, {*혹시, *혹시라도} 싶어 집에 와서 우리 저울로 달아 보았더니 1500g밖에 되지 않았다.

요약하자면, '혹시나'는 대체로 '혹시'와 분포가 비슷하고, '혹시'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부사라고 할 수 있으나, '혹시나 하-', '혹시나 싶-'이라는 독자적인 용법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겠다.

3.3.2. 혹시라도

김혜영(2019)는 부사가 문장에서 부사어로 사용될 때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은/는, 도, 까지, 만' 등의 보조사와 결합하여 사용되는 경우도 있음을 보인다. 여기에서 '혹시'에 '-라도'가 결합한 것으로 나온다. '혹시라도'는 조건문에서의 사용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관찰되었다.

(31) ㄱ. 혹시라도 정 의원님께서 떨어진다면 남 의원 지지하실 생각입니까?

ㄴ. 공사 진행 중간중간 현장을 방문하여 체크를 하시고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 요구하세요!

ㄷ. 혹시라도 키가 클 수 있다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자기 전 스트레칭도 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보려고 합니다.

ㄹ. 혹시라도 제가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국에 미국 여권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공식적 기록 상으로는 저는 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간 게 되잖아요?

박승윤(1988)에서 제시한 세 가지 조건 세계 의미, 즉 (i) 사실 세계 (ii) 불확실세계(hypothetical), (iii) 가정세계(counterfactual)에 비추어보자면, (31)에서 '혹시라도'가 나타내는 조건 세계는 '불확실세계'와 '가정세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불확실세계'의 조건 의미만을 나타낼 수 있는 '혹시'보다 '혹시라도'는 나타낼 수 있는 조건의 의미가 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4. ‘혹시’의 의미·화용적 특성

4.1. ‘혹시’의 의미적 특성

4.1.1. ‘혹시’가 나타내는 [불확실성]

3장의 논의를 종합해보았을 때, ‘혹시’는 세 유형의 [불확실성] 의미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명제 내용에 대한 [불확실성], 청자의 능력 또는 정보 보유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화자의 화행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① 명제 내용에 대한 [불확실성]

‘혹시’는 명제 차원에서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32) ㄱ. 혹시 IT 쪽인가요?
ㄴ. 혹시 미스 세이코이십니까?
ㄷ. 여러분 혹시 초, 중, 고등학교 시절의 교가 기억나십니까?
ㄹ. 혹시 어디가 아픈 것은 아닐까?

이때 ‘혹시’가 나타나는 의문문은, 다음의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불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33) ㄱ. (청자의 직업이) IT 쪽이다.
ㄴ. (청자가) 미스 세이코이다.
ㄷ. (여러분이) 초, 중, 고등학교 시절의 교가가 기억나다

ㄹ. (몸의) 어디가 아프다.

② 청자의 능력 또는 정보 보유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질문, 요청, 명령 등의 화행을 수행할 때, 청자의 능력 또는 정보 보유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것은 범언어적인 공손성 실현 방법이다. 다음은 상대방에게 상대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요청의 간접화행을 나타내는 의문문이다.

(34) ㄱ. 혹시 현재 어디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ㄴ.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ㄷ. 혹시 언제쯤 신형이 나오는지 대략 아시나요?
ㄹ. 혹시 오늘 의총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ㅁ. 혹시 왜 그 주제 하고 싶은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34)에 나타난 '혹시'는 청자가 내포 의문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지, 내포 의문문에 대해 답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화자의 [불확실성]을 표현해 '질문에 요구되는 답을 해야 한다'라는 청자의 부담을 줄이는 기능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혹시'가 사용된 모절은 주로 가능 표현이나 인지 동사를 술어로 취해 청자의 능력을 묻는 의문형으로 문장을 종결한다.

이때 모절에 작용하는 '혹시'는 내포절에 대한 화자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며, 이는 의문문의 형식과 함께 제시된다. (34)은 내포절의 설명의문문에 대한 답을 청자에게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혹시'의 용법은 양태부사 '혹시'의 의미와 기능을 투명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34)은 핵심 내용을 모절에 삽입해 간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화자에게 직접적으로 단언이나 질문을 하지 않고 있다. 이때 모절에 작용하는 '혹시'는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물론, 직접적인 표현

을 최대한 피해 청자에게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기능 또한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화자의 화행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더 나아가 '혹시'는 화행 차원에서 화자가 화행을 수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35) ㄱ. 혹시 어떤 말씀들 나누셨는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ㄴ. 혹시 이유를 물어도 되겠습니까?
ㄷ. 혹시 구입처와 정확한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ㄹ. 혹시 제가 인터뷰를 요청해도 될까요?

(35ㄱ~ㄷ)은 화자가 '혹시'와 의문문을 통해 화자에게 질문 화행을 수행해도 되는지, (35ㄹ)은 요청 화행을 수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로써 '혹시'가 나타내는 세 유형의 [불확실성]을 살펴보았다. 흥미로운 점은 ②와 ③에 이르면, '혹시'가 나타내는 [불확실성] 의미는 더 이상 인식적 불확실성(epistemic uncertainty)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청자의 능력 또는 정보 보유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과 화자의 화행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객관적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인식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혹시'의 인식양태 의미를 효과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주관화(subjectification)'이다. 주관화란 실제 세계의 사건이나 상황을 지시하던 의미가 시간이 지나면서 의사소통 세계의 발화 사건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부호화(encode)하거나 외현화(externalise)해간다는 기제(Traugott, 2003:126)이다. 이를 '혹시'에 적용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실제 세계의 사건이나 상황을 지시하던 의미, 즉 객관적인 명제에 대한 인식적 불확실성을 나타내던 '혹시'의 의미가 '청자의 능력 또는 정보

보유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과 '화자의 화행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의사소통 차원의 주관적인 의미로 발달해나가는 것이다.

'상호주관화(intersubjectification)'란 화자가 인식(epistemic) 및 사회적 관점에서 청자의 자아에도 주목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Traugott. 2003:126)이다.[5] 화자는 청자를 인식하게 되고, 이때 '혹시'는 화자의 인식적 태도가 아닌 청자, 대화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부사 '혹시'가 작용하는 영역이 명제는 물론 명제 영역 그 이상의 것으로, 즉 화용론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5) Traugott(2003)의 번역은 이후인(2015)을 인용하였다.

4.2. 명제 부사와 화행 부사

앞서 2장에서는 '혹시'를, 그 양태 의미가 명제에 작용하는 명제 부사로 파악했다. 최근의 부사 논의 중 문장의 층위를 설정해 부사의 작용역을 파악해 부사의 특성을 고찰하는 연구들이 있다.

김태인(2014, 2016, 2019)은 한국어 문장의 의미 층위를 설정하고, 부사가 문장 내에서 어떤 범주를 그 작용역으로 가지는지를 통해 부사의 문법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본고에서는 김태인(2014, 2016, 2019)의 문장 계층 구조를 받아들여, '혹시'의 [불확실성] 의미를 설명해보고자 한다. 다음은 김태인(2014, 2016, 2019)에서 Ernest(2004)와 김량혜윤(2003)의 논의를 종합하여 제시한 문장의 계층 구조이다.

(36) 문장의 계층 구조(김태인 2014, 2016, 2019)

Speech-Act	>	Fact	>	Proposition	>	Event	>	SubEvent
화행		사실		명제		전체 사건		하위 사건

인식적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혹시'는 명제 층위에 작용하는 부사이다. 양태 부사어는 명제 범주를 작용역으로 삼아 어떤 명제에 대한 화자의 확신성의 정도를 나타낸다(김태인, 2016:76-77). 그런데 4.1에서 '혹시'의 [불확실성]의 양태 의미가 명제에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태인(2016:78)에 따르면, 문장 가장 바깥 층위에는 화자와 청자가 존재하며, 화자는 문장의 내용을 발화하는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나 문장 자체가 가지는 형식적 성격에 대해 메타적으로 무엇인가를 표현할 수 있다. 이때 메타적 표현이 대상이 되는 실체를 화행 범주라고 한다. 화행 부사어는 이 범주에 결합하는 것이다(김태인, 2016:78).

'혹시'의 [불확실성] 의미는 명제 층위와 화행 층위에 걸쳐 작용한다고

판단된다. 즉, ‘혹시’는 기존 문법에서 기술하듯 단순한 명제 부사로 볼 수는 없으며, 화행 부사로도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혹시’가 설명의문문과 결합하는 용법은 ‘혹시’가 화행 층위에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것에서 더 나아가, 화자가 문장의 내용을 발화하는 자신의 태도에 대해 메타적으로 ‘공손성’, ‘조심스러움’ 등을 표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본다. 즉 ‘혹시’는 인식양태부사, 즉 명제 부사로서도, 화행 부사로서도, 담화표지로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혹시’의 다양한 용법에는 [불확실성]이라는 양태 의미와 이로 인한 의문문과의 긴밀한 결합 관계가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4.2. ‘혹시’의 화용적 특성

4.1에서 ‘혹시’가 갖는 [불확실성] 의미의 특성을 살피고, 세 유형의 [불확실성] 의미로 인해 ‘혹시’가 명제 층위와 화행 층위에 걸쳐 작용하는 부사임을 알아보았다. 4.2에서는 ‘혹시’의 화용적 특징을 종합하고자 한다.

4.2.1. 완화표현으로서의 ‘혹시’

부사 ‘혹시’는 담화에서 ‘완화(mitigation)’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완화표현이란 “의사소통의 참여자가 연루될 수 있는 다양한 위협과 책임을 감소시키기 위해 화자가 발화의 강도를 낮추는 언어적 수단”(고재필, 2017:17)이다. 완화표현은 화자와 청자의 체면 위협을 모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혹시’의 [불확실성] 의미가 개입하여 완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37) ㄱ. 혹시 자코메티라고 알아요? 조각가인데.
ㄴ. 혹시 한국 국기를 직접 만들어줄 수 있어요?
ㄷ. 혹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수정해 주세요.
ㄹ. 혹시 이 로고 어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37)의 용례 모두 화자와 청자의 체면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혹시’가 사용되었다. (37ㄱ)은 ‘청자가 자코메티를 안다’라는 내용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코메티를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혹시’를 통해 더욱 강조하여, 자코메티를 알지 못할 수도 있는 청자의 체면을 손상하는 것을 방지한다. (37ㄴ) 은 청자가 요청 행위를 수행해 줄 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화자는 요청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을 제시해 자신의 체면을 지키는 한편, 청자에게는 요청 행위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달하여 청자의 부담을 경감시

킨다. 이를 통해 화자의 체면을 보호하고자 한다. (37ㄷ)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를 조건절을 통해 제시한다. 이는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전달해 화자의 체면 위협을 방지하는 한편, 청자에게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과감히 수정하는 행위'를 해도 좋다는 내용을 전달해 청자의 체면 위협 역시 방지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발화에서 사용된 '혹시'는 먼저, 청자에게 의문의 화행을 행해 청자의 체면을 손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청자를 배려해 청자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는, 일종의 공손성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화자 자신의 체면을 보호하는 기능 또한 수행하는데, '혹시'를 사용해 자신의 추측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내세워 잘못된 추측을 했을 때의 체면 손상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김명운(2009)에 따르면, 화자는 자신의 진술에 담겨있는 주장에 대해 암시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단어나 표현, 즉 '완충 표현'을 덧붙여, 내용에 대한 도전을 받을 경우 내용을 수정하거나 쉽게 하여 체면을 유지하고자 한다. '혹시'는 담화에서 김명운(2009:14)에서 소개한 '아마', '좀', '지금은', '-같아요', '일종의', '고맙게도', '다행히', '운좋게도' 등의 표현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4.2.2. '혹시'의 공손성 기능

고재필(2017)에서 언급했듯 완화표현과 공손성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완화표현이 항상 공손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고재필, 2017:21-22 참고), '혹시'의 경우 그 완화 기능이 공손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하였다.

김명운(2009:129)은 공손성 실현의 기제로 '통사적 전환' 중 '간접화'를 제시한다. 간접화란 요청이나 명령을 의문이나 평서의 형식으로 전환하여 표현하여 청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공손성이 실현되는 것이다(김명운, 2009:129). '혹시'는 청자에게서 내포 의문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불확실함을 나타내면서, 청자의 거절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김명운(2009)에서는 요청이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를 축소하여 표현함으로써 공손성이 실현된다고 보았는데, 이는 상대의 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게 열어놓는, 상대에 대한 일종의 배려이기 때문이다. 좀더 일반화해 기술하자면, 양태부사 '혹시'는 청자가 어떤 행위를 실현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여, 청자에게 부담이 덜 되게 하려는 공손성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런데 3.2에서 지적하였듯, '혹시'가 설명의문문에 직접 결합할 때, '혹시'는 문장에서 부사의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38) ㄱ.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ㄴ. 혹시 지역구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까?
ㄷ. 혹시 언제 이사 오셨어요?
ㄹ. 혹시 다른 후보 왜 지지하시나요?
ㅁ. 혹시 화장실이 어디 있죠?
ㅂ. 혹시 동아리 활동은 몇 개 정도 했었어요?

(38)에서의 '혹시'는 부사로서의 의미와 기능을 잃고 '질문을 할 때의 조심스러운 태도'를 나타내는 담화 기능, 즉 공손성 기능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재필(2017)은 "완화 표현이 특정 화행과 빈번히 공기하고 함께 관습화됨에 따라 오히려 화행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예로서, 발화수반력 명시 장치(illocutionalry force indicating device: IFID)로 사용(2017:26-7)"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요청 화행에서 '혹시'가 빈번히 등장하면서, '혹시'가 IFID 해석되는 용례가 관찰되었다. 다음은 말뭉치에서 발견된 매우 흥미로운 용례이다.

(39) ㄱ. 글 쓰신 분 혹시 글 삭제하지 말아주세요.
ㄴ. 혹시 참고서 추천 좀 부탁드려요.

(39)는 매우 어색하고, 말뭉치에서도 거의 관찰되지 않는 특이한 용례인데, ‘혹시’가 인식양태부사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요청을 조심스럽게 나타내는 ‘공손성 표지’로 발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혹시’가 다음과 같은 요청 화행을 갖는 문장에서 빈번히 사용되면서 IFID로 사용되고, 이후에 문장 유형과 상관없이 ‘혹시’가 결합한 것이라 설명할 수 있다.

(40) ㄱ. 글 쓰신 분 혹시 글 삭제하지 말아 주실 수 있나요?
ㄴ. 혹시 참고서 추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완화 기능과 공손성 기능을 수행하는 ‘혹시’는 화행부사로 층위가 변화하면서 점차 공손성의 의미도 옅어지며 담화표지화 되어 가는 것 같다. “담화표지란 ‘you know’, ‘you see’, ‘well’, ‘oh’, ‘anyway’와 같이 내용어보다 기능어에 더 가깝고, 명제의 진리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담화 맥락상 응집성을 강화시키거나 담화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언어요소”(후박문, 2021:47)이다.

한국어의 ‘혹시’는 문두에 나타나는 특성으로 인해 담화 표지로의 변화가 더 쉽게 일어나는 듯하다. ‘라이터 갖고 계세요, 혹시?’와 같은 발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한국어의 어순 상 확실히 도치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국어의 어순적 특징이 ‘혹시’의 담화 기능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혹시’는 상대방에게 말을 걸거나, 대화를 맨 처음 시작할 때 자주 등장한다. 상대방에게 대화를 시작하기 전 상대에게 대화를 시작할 준비를 하게 하는, 담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혹시’는 아직 사용 영역이 좁기는 하나 한국어 담화표지 ‘저’와 같은 표현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혹시’가 (41)의 상황에서처럼 ‘호출어(summons)’로 사용되는 것 같은 용법 또한 관찰된다. 호출어란 화자가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

로, 청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청자에게 자신의 대화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기능을 한다(송인성, 2020:540). 이때 '혹시'는 단독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41) 상황: 철수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다가, 웨이터에게 요청할 것이 생각났다. 철수는 테이블 옆을 지나가는 종업원과 눈이 마주치자, 종업원에게 말한다.

철수: 혹시…….

종업원: 네, 손님.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혹시'는 운율적 특성도 나타나는데, 공손성 표지로 기능하는 '혹시'를 발화할 때, 두 번째 음절인 '시'를 하강조로, 약간 길게 발음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42) ㄱ. 혹시(↘) 김철수 씨 맞으세요?

ㄴ. 혹시(↘) 어떻게 번호 알고 전화하셨어요?

ㄷ. 혹시(↘) 어떤 사이인가요?

공손성 표지로 기능하는 '혹시'의 운율적/음성적 특성을 음성 말뭉치를 통해 검증해본다면 '혹시'에 대한 기술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혹시'의 음성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다음으로 기약한다.

5. 결론

본고는 현대 한국어에서 관찰되는 '혹시'의 용법과 기능을 살피고 그 원인을 '혹시'의 양태 의미에서 찾아 '혹시'의 특징을 전면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혹시'는 현대 한국어에서 매우 사용 빈도가 높은 부사로, 문장부사이며 양태부사로 분류된다. 전통적인 문법 기술에서, '혹시'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추측], [가정], [불확실성], [의심], [의문] 등의 양태 의미를 갖는 문장부사로 취급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1장에서 제시한 연구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① 한국어 부사 '혹시'는 전형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사용되며, 그 통사적·의미적 특성은 어떠한가?

'혹시'는 전형적으로 판정의문문 앞, 판정의문문에 삽입된 내포의문절 앞, 조건절 앞, 양보절 앞에 사용된다. 본고는 이러한 '혹시'의 용법을 [불확실성]이라는 양태 의미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혹시'는 세 가지 유형의 [불확실성]이 세 가지 유형을 갖는다. 첫째, 명제 내용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둘째, 청자의 능력 또는 정보 보유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셋째, 화자의 화행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명제에 대한 화자의 객관적 판단, 즉 인식적 불확실성(epistemic uncertainty)이라는 객관적 양태 의미를 나타내던 '혹시'가 보다 주관적이며 청자를 고려하는 차원의 [불확실성]을 나타내게 된 것은 양태의미의 '주관화(subjectification)'라는 기제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혹시'의 [불확실성]의 양태 의미가 명제 층위가 아니라 화행 층위에도 작용하게 되는데, 본고는 '혹시'가 명제 부사뿐만 아니라 '화행 부사'로서도 사용된다고 본다.

② 한국어 부사 ‘혹시’는 어떠한 맥락에서 설명의문문과 직접 결합하게 되었는가? 이러한 용법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혹시’가 설명의문문과 직접 결합하는 용법 또한 최근 젊은 세대의 발화에서 관찰되는데, 이때 ‘혹시’는 더 이상 부사로 기능하지 않고 후행하는 의문문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더하는 기능을 한다. ‘혹시’는 [불확실성] 의미로 인해 화행 부사로서의 기능도 수행하는데, 점차 부사의 의미와 기능을 상실하고 ‘조심스러움’, ‘공손함’ 등의 담화의미만이 남아 담화표지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담화표지는 후행하는 문장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결합하는 특성을 갖기에, 담화표지화된 ‘혹시’가 설명의문문 앞에 공기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혹시’는 담화에서 어떠한 화용적 기능을 수행하는가? 또 그러한 화용적 기능을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혹시’는 [불확실성]의 양태 의미로 인해 담화에서 완화(mitigation) 기능을 수행한다. ‘혹시’는 담화에서 청자와 화자의 체면 위협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완화 기능은 담화에서 공손성 기능으로 이어진다. ‘혹시’가 담화에서 공손성 기능을 수행하면서 그 부사적 기능 및 의미를 상실하고, ‘공손성 표지’로만 기능하게 된다. 이때 ‘혹시’는 상대방에게 말을 걸거나, 대화를 맨 처음 시작할 때 자주 등장한다. 상대방에게 대화를 시작하기 전 상대에게 대화를 시작할 준비를 하게 하는, 담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강민(2020), 「한중 추측 양태 부사 대조 연구: '아마, 어쩌면, 혹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소영(2002), 「[확연], [당연], [개연]의 양태표지 연구」, 『한국어학』 16, 한국어학회, 217-236.

강영리(2016), 「'-ㄹ까'의 의향 용법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영리·서취아·박진호(2018), 「가능 표현의 실현 용법에 다하여: '-을 수 있-' 및 일본어·중국어의 대응 표현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50,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313-346.

강창우(2006), 「간접화행의 형태와 기능에 대한 대조언어학적 연구」, 『독어학』 13, 235-259.

고영근·남기심(2014),『한국어 문법론』,박이정

고영근(2004), 「서법과 양태의 상관관계」, 『단어 문장 텍스트』, 247-263.

고재필(2017), 「한국어 완화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구본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황선엽(2015), 『한국어 문법 총론Ⅰ』, 집문당

구종남(2002), 「담화표지 '뭐'의 문법화와 담화 기능」, 『국어문학』 35, 국어문학회, 5-32.

구종남(1995), 「간접 의문 어미의 통사적 특징과 의미」, 『전북대학교 논문집 제40집 인문사회과학편』, 전북대학교, 113-125

구종남(1996), 「간접 의문절의 통사 분석」, 『한국언어문학』 37, 한국언어문화학회, 7-24

김경훈(1996), 「현대 국어 부사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다미(2018), 「한국어 어미 '-ㄴ지'의 통사와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명운(2009), 「현대국어의 공손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지혜(2010),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양태부사 '아마'와 '혹시'의 어휘 정보 연구」, 『한국어학』 47, 163-190

김태엽(2000), 「국어 담화표지의 유형과 담화표지되기」, 『우리말글』 19, 1-23

김태엽(2002), 「담화표지되기와 문법화」, 『우리말글』 26, 우리말글학회, 61-80

김태인(2014), 「한국어 부사 '잘'의 의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태인(2016), 「문장의 의미 범주와 부사어 분류」, 『한국어 의미학』 51, 한국어의미학회, 57-83

김태인(2019), 「한국어 문장의 의미 층위에 대한 연구-사건, 명제, 사실, 화

행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현권(1996), 「어휘부 구축을 위한 현대 한국어 부사의 기술-한국어 부사 분류와 기술의 문제-」, 『언어학』 24, 한국언어학회, 109-144.
김혜영(2019), 「현대 한국어 부사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남기심·고영근(2014),『표준국어 문법론』, 박이정.
리해영(2011), 「양태부사 '혹시' 사용에 관한 오류분석 및 중국어 대응 관계」, 『중국조선어문』, 2011(6), 28-33.
마영(2013), 「한국어 양태부사 '과연'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숙영(2019), 「한국어의 부사 및 부사절의 언어유형적 특징」, 『국어국문학』 187, 5-53.
문혜정·권성미(2015),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아마"와 "혹시"의 교수, 학습 방안 연구」, 『언어과학연구』 72, 195-214.
박기선(2012), 「한국어 간접의문문 형식의 사용 양상 연구-말뭉치 분석을 통한 '-냐고'의 통합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39, 175-203.
박소영(1999), 「한국어 문장의 계층 구조와 부사」, 『언어연구』 19, 서울대학교 언어연구회, 43-72.
박승윤(1988), 「국어의 조건문에 관하여」, 『언어』 13(1), 한국언어학회, 1-14.
박승윤(2007), 「양보와 조건」, 『담화와인지』 14(1), 담화·인지언어학회, 63-83.
박영순(2007), 『한국어 화용론』, 박이정.
박재연(1999), 「국어 양태 범주의 확립과 어미의 의미 기술—인식 양태를 중심으로」, 『국어학』 34, 199-225.
박재연(2003), 「국어 양태의 화·청자 지향성과 주어 지향성」, 『국어학』 41, 249-275.
박재연(2005), 「인식 양태와 의문문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어학연구』 41(1), 101-118.
박재연(2006),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국어학회.
박재연(2009), 「'주어 지향적 양태'와 관련한 몇 문제」, 『한국어학』 44, 1-25.
박재연(2009), 「연결어미와 양태-이유, 조건, 양보의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30, 119-141.
박재연(2013), 「한국어의 인식론적 범주와 관련한 몇 문제」, 『국어학』 66, 79-107.
박재연(2019), 『한국어 어미의 의미』, 집문당.
박진호·박병선(1999), 「서법의 정의 및 한국어 서법 범주의 체계화」, 『제19차 한국어학회 전국 학술대회 자료집』, 129-136.

박진호(2007),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대명사 체계의 특징」, 『국어학』 50, 국어학회, 115-147.
박진호(2010), 「언어학에서의 범주와 유형」, 『인문학연구』 17,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65-292.
박진호(2011ㄱ), 「시제, 상, 양태」, 『국어학』 60, 289-322.
박진호(2011ㄴ), 「한국어에서 증거성이나 의외성의 의미성분을 포함하는 문법요소」, 『언어와 정보 사회』 15, 1-25.
보일평(2017),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추측 양태부사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정수(1971), 「국어 부사류의 구문론적 연구(2)-제약부사론」, 『동방학지』 12, 197-221.
서정수(2005), 『한국어의 부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손남익(1995), 「부사와 서법의 제약」, 『한국어학』 2, 한국어학회, 211-246.
손남익(2016), 「부사의 의미론 <어휘적 관점에서>」, 『한국어 의미학』 52, 한국어의미학회, 139-161.
신서인(2011), 「문장부사의 위치에 대한 고찰」, 『국어학』 61, 207-238.
신서인(2014), 「담화 구성요소를 고려한 문장부사 하위분류」, 『한국어 의미학』 44, 89-118.
신현규(2019), 「한국어 '-면' 관련 구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현규(2021), 「'-을까' 의문문의 대화 참여자 정보 분포와 공손성 연구」, 『어문연구』 19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35-161.
이선영(2014), 「명제와 양태」, 『한국어의미학』 43, 한국어의미학회, 303-320.
이선웅(2001), 「국어의 양태 체계 확립을 위한 시론」, 『관악어문연구』 26, 317-339.
이순욱(2017), 「한국어 양보의 표현방책과 의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의종(2020), 「한국어 연결 어미의 레지스터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홍구(2021),「중세 한국어 양보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환묵(1976), 「문장부사 '다행히'에 대하여」, 『언어』 1(2), 한국언어학회, 126-139
이후인(2015), 「한국어 양태접속부사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동훈(2003), 「국어 양태 체계의 정립을 위하여」, 『한국어의미학』 12, 한국어의미학회, 127-153.
임동훈(2008), 「한국어의 서법과 양태 체계」, 『한국어 의미학』 26, 한국

어의미학회, 211-249
임동훈(2011), 「한국어의 문장 유형과 용법」, 『국어학』 60, 323-359.
장경희(1985), 『현대국어의 양태 범주 연구』, 탑출판사.
장소원(1998), 「국어 의문사 어휘의 실제적 용법 연구」, 『언어』 23(4), 691-708.
장영희(1994), 「현대 국어 화식부사의 의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장영희(1997), 「화식부사의 의미 유형에 관한 고찰」, 『한국어 의미학』 1, 한국어의미학회, 219-235.
전혜영(1983), 「가정 조건문 연구」, 『이화어문논집』 6,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29-39.
정연주(2016), 「의존명사 '줄'의 기능 특화 양상」, 『영주어문』 34, 65-94.
차현실(1986), 「양상부사의 통사적 특성에 따른 의미분석—'아마''글쎄''혹시'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11, 139-167.
최죽산(2015), 「한중 추측 양태부사의 통사적 대조 연구」, 『한국(조선)어교육연구』 10,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264-289.
탕이잉·진영하(2021), 「한국어 추측 표현과 양태 부사의 공기 양상에 대한 계량적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8(1), 297-324
후박문(2021), 「한국어 진실성 부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lexiadou, A.(1997), Adverb Placement : a case study in antisymmetric syntax, Amsterdam: J. Benjamins.
Austin, J. L(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Brinton, L.J.(1996), Pragmatic markers in English : grammaticalization and discourse functions, Berlin ; New York : Mouton de Gruyte.
Brown, P. & S. C. Levinson(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ybee, J. (2010), Language, Usage, and Cognition, Cambridge ;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Bybee, J., R. Perkins & W. Pagliuca(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inque, G.(1999), Adverbs and functional head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Dancygier, B.(1998), Conditionals and Prediction : Time, Knowledge, and Causation in Conditional Constructions, New York: Cambridge.
Ernst, T.(2004), The Syntax of Adjun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Grice, H. P.(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Cole, P. & J. L. Morgans(eds.), 41-58.
Hopper, P. & E. C. Traugott(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uang Y.(2014), Pragmatics(2e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Jackendoff, R.(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 MIT Press.
Leech, G. N.(1983), Principle of Pragmatics, London: Longman.
Leech, G. N(2014), The Pragmatics of Politenes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almer, F. R.(2001), Mood and Modality(Lyons-, J.(1977), Semantics 2,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2nd ed.), Cambridge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Ramat, P. & D. Ricca(1998), Sentence adverbs in the Language of Europe, in van der Auwera(eds.), Adverbial Constructions in the Language of Europe, Berlin: Mouton de Gruyter, 187-275.
Searle, J. (1969), Speech Acts: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earle, J. (1975/2005), Expression and Meaning: Studies in the Theory of Speech Ac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Swan, T.(1988), Sentence Adverbials in English: a synchronic and diachronic investigation, Oslo: Novus Forlag.
Sweetser, E.(1990), From etymology to pragmatics: metaphorical and cultural aspects of semantic structure,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Traugott, E. C. & R. B. Dasher(2002), Regularity in semantic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raugott, E. C.(1982), From propositional to textual and expressive meaning: A Symposium, Some semantic-pragmatic aspects of grammaticalization, in W. P. Lehmann & Y. Malkiel(eds.), Perspectives on historical linguistics, John Benjamins, 245-271.
Traugott, E. C.(1999), The rhetoric of counter-expectation in semantic change: a study in subjectification, in A. Blank & P. Koch(eds.), Historic Semantics and Cognition, Mouton de Gruyter, 177-196.
Traugott, E. C.(2010), (Inter)subjectivity and (inter)subjectification: A Reassessment, in K. Davidse, L. Vandelanotte & H. Cuyckens(eds.), Subjectification, Intersubjectification and Grammaticalization, De Gruyter Mouton, 29-71.

Van der Auwera, J., & V. A. Plungian(1998), Modality's semantic map, In Linguistic Typology 2-1, Mouton de Gruyter, 79-124.
Whaley, L. J.(1997), Introduction to Typology : The Unity and Diversity of Language, London: SAGE.
Xrakovskij. V(eds.)(2005), Typology of conditional constructions, LINCOM Studies in Theoretical Linguistics.
Yule, G(1996), Pragma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A Study on Korean Adverb *Hoksi*

Park Goeu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meaning and grammatic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adverb *hoksi* and to discuss the new usage of it as observed in the recent utterances of younger Korean speakers.

In traditional grammar, *hoksi* was considered as a sentence adverb having a modality meaning, such as the speaker's [speculation], [assumption], [uncertainty], [doubt], and [question] about propositions. However, recently *hoksi* is observed in front of wh-questions which cannot have truth value. This usage is far from the typical usage of *hoksi* and thus needs to be explained.

Before discussing the new usage of *hoksi*, this paper reviews the usage of *hoksi* as discussed in previous studies.

In Chapter 2, this paper sets the modality meaning of *hoksi* as [uncertainty] and establishes the concept of the 'proposition', which is necessary in the discussion of the modality, also defin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hoksi*, proposition, and the sentence. According to the research, *hoksi* is an adverb with scope over the proposition,

and due to the meaning of [uncertainty], it frequently appears with yes-no questions.

Chapter 3 examines the typical use of *hoksi*, through a corpus analysis, and then examines its extended usage, finding that *hoksi* is typically used in front of yes-no questions, in front of embedded questions, in front of conditional clauses, and in front of concessive clauses. This paper sees a direct conjunction between *hoksi* and wh-questions as the extended usage of *hoksi*. In this new usage, *hoksi* appears no longer to be used as an adverb but instead as a discourse marker, which adds hesitation and a polite attitude to the speaker when asking a question.

In Chapter 4, based on the observation in chapter 3, the semantic and pragmatic characteristics of *hoksi* are discussed. In section 4.1.1, this paper shows that there are three types of meanings of [uncertainty] in the usage of *hoksi*. The first is [uncertainty] about the content of the proposition, the second is [uncertainty] about the hearer's ability or possession of information, and the third is [uncertainty] about whether the speaker can perform the speech act. It is found that *hoksi*, which is used to express the speaker's objective epistemic judgment on the proposition, can be used as more subjective [uncertainty] considering the hearer or the attitude of the speaker. Section 4.1.2 reveals that the modality meaning of *hoksi* has scope over the category of the speech act, not over the category of the proposition; therefore, *hoksi* can be used not only as a propositional adverb but also as a speech act adverb.

Chapter 4.2 examines the pragmatic characteristics of *hoksi.* Hoksi performs a mitigation function in the discourse due to the meaning of [uncertainty], which shows politeness in discourse. This paper also examines the case in which *hoksi* loses its adverbial

function and meaning and functions only as a 'politeness marker'. This usage appears to be drawn from the meaning of [uncertainty], and as such usage becomes more frequent, with the term gradually acting as a discourse marker.

Chapter 5 summarizes the entire discussion, presents answers to the research questions presented in Chapter 1 and proposes directions for further study.

keywords : *hoksi*, adverb, epistemic modality, uncertainty, interrogative, condition, concession, politeness

Student Number : 2020-22558